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가설

공 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증가된 독립성과 자율성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보장받게 되므로,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인지적 능력 및 사회적 기술이 증가된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에 자신의 관심이나 욕구 등에 따라 원하는 활동을 하게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시간은 학교생활 이후인 방과 후 시간이 된다.

청소년이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보내는 방과 후 자유로운 시간은 그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Larson, 1997) 아동과 청소년의 대부분의 일탈행동이 학교생활 이후에 발생하므로((Newman, Fox, Flynn, & Christeson, 2000) 위협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 발달에 유해한 환경이 난무하고 비행 청소년의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청소년이 개입되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도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49.0%(통계청, 2001)이고 주부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적 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보호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방과 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청소년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은 많으나 부모의 바쁜 일과 탓에 자녀 지도는 양적·질적으로 떨어지고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지나친 입시경쟁과 조기교육 열풍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를 어느 연령부터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대안으로 학교 교육이 끝난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학원수업을 수강시키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과

계획 중인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청소년의 자유시간이 증가될 것을 고려해 보면 적절한 방과 후 활동 지도 및 청소년의 적응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 후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이 학생들의 학교 증퇴를 예방한다는 결과(Mahoney & Cairns, 1997)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활동이 청소년 문제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지만 한국의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내용은 제한적이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 밖에서의 방과 후 활동 실태와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적응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학교 차원, 나아가 정부 차원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연구는 방과 후 활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와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녀와 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즉 성별, 인종, 가정의 수입,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가족구성,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문화 등의 변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1; Bianchi & Robinson, 1997; Fuligni & Stevenson, 1995; McHale, Crouter, & Tucker, 2001;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Posner & Vandell, 1999; Richard & Duckett, 1994). 이러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일치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로 성별을 고려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연구(김미혜 등, 2001; Fuligni & Stevenson, 1995; McHale, et al., 2001; Pettit, et al., 1999; Posner & Vandell, 1999; Richard & Duckett, 1994)에서 방과 후 활동

중 학업관련 활동은 학교적응, 학업성적과 정적 관련성이 있으나 공격성,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고 집밖에서 놀기나 배회 등의 실외 활동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 외 TV 시청, 독서 등의 실내 활동 및 운동활동과 적응간의 관계는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비구조화된 배회 활동을 많이 하는 아동은 장기적으로 행동문제를 일으키고 적응을 잘하는 아동은 장기적으로 방과 후 활동 중 학업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비구조화된 배회를 적게 한다는 것이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McHale, et al., 2001; Posner & Vandell, 1999). 이처럼 방과 후 활동과 적응은 상호적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특히 방과 후 활동 중 학업관련 활동과 비구조화된 방황/ 배회는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방과 후 활동으로 학업관련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문제행동의 발생여지가 적지만 실외활동을 통한 배회를 많이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문제행동 장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공부만 하게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런 관계를 중재해 줄 수 있는 변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과 후 활동으로 배회에 따른 문제행동의 증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자유로운 방과후 활동을 인정하면서 적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행동문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서(김선희, 김경연, 1999; 이선경, 2001)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공부를 안하거나 또는 또래와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때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장의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방과 후 활동 중 위험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 것으로 추

측할 수 있으나 경험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모로서 부모의 자녀지도라는 맥락에서 최근 많은 연구들이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 변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활동 내용, 장소 및 동반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부모감독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Jacobson, 2000;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방과 후 또래 접촉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Pettit, et al., 1999)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로서 부모감독 변인의 중요성이 지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감독의 청소년 비행 및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영향을 밝힌 연구(박진경과 도현심, 2001)에서는 부모감독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 후 다양한 활동과 적응간의 중재요인으로 부모감독에 관심을 가진 국내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방과 후 활동 중 어떤 활동과정에 부모가 개입해야 자녀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가 곤란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교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의 종류와 청소년의 참여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Bianchi & Robinson, 1997; McHale, et al., 2001; Pettit, et

al., 1999; Posner & Vandell, 1999; Richard & Duckett, 1994). 국내에서는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지만 실태 중심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김미혜 등, 2001). 자기보호 능력이 증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빈약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실태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고 청소년의 자율적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적응상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모감독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경험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이뤄질 수 있고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이 되므로 청소년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방과 후 다양한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생활하는 장에서 자신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의해 발달되므로 방과 후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방과 후 활동의 일반적 실태를 알아보고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를 성별로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1-1. 방과 후 활동유형별 시간 사용실태는 어떠한가?

1-2. 청소년의 성별·자기보호시간, 모의 취업유무·교육수준 및 가정의 수입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 3-3. 어머니 감독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가설

공 백

II. 이론적 배경

1. 청년 초기의 발달적 특성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로 불리는 청년기는 발달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는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발달적 특성이 다른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다. 발달단계를 하나로 취급하기에는 연령범위가 너무 넓어 청년기를 청년초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청년 초기는 중학교시기에 해당하고 청년후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해당되며 이성교제, 정체감문제, 직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나타난다(장휘숙, 1997).

청년 초기는 생물학적으로 이차 성징의 출현과 급속한 신체적 성장, 인지능력의 발달, 사회적 기술 등의 발달적 향상이 이뤄지는 시기이고 이에 따라 자율성에 대한 욕구도 증가한다. 청소년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혼자 있으려는 욕구가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활동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Larson, 1997) 청년기 이전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다.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자녀관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소원해지기 쉽고(Papini, Farmer, Clark, Micka, & Barnett, 1990) 친구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더 중요해지며(장휘숙, 1997) 또래에 대한 동조성(Bernet, 1979) 및 친밀감(Larson, 1997) 등이 증가하면서 또래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Smetana, 1988). 그들의 주된 생활이 이뤄지는 학교생활에서도 변화를 경험한다. 담임교사 이외에 다양한 교과목 선생님과 학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중학교로 진

학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가장 높은 학년에서 가장 낮은 학년으로의 지위상의 변화도 경험한다.

청년 초기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변화, 학교생활의 변화 및 이행경향성(transition-proneness)-독립성에 대한 높은 가치, 사회적 행동의 증가, 신앙심의 감소 및 부모기준의 지각된 완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또래에 대한 신뢰성의 증가-(Jessor & Jessor, 1978 Baumrind, 1991재인용)은 종종 청소년의 낮은 성취, 빠른 성격형, 약물사용을 수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초기는 발달적으로 취약한 시기로 간주된다.

한편 청소년 초기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인간생활 전 주기 중 발달적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어떤 청소년은 청소년 초기를 혼란스러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Santrock, 1996). 즉 평생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Bandura 역시 청년기가 반드시 이유 없는 반항을 경험하는 시기이거나 질풍노도의 시기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는 청년에 대한 질풍노도의 시각은 단지 규범에서 벗어난 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청소년 초기의 변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적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상황에 초점을 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 초기의 대표적인 환경적 변화 중에 하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의 증가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기술의 증대로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직접적인 보호가 없어도 청소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믿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청년 초기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탈 행동이 방과 후 오후 시간에 일어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Newman 등, 2000) 있고 청년기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성인의 감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Richards & Duckett, 1994)는 견해에서 청년기 자녀에 대한 성인의 보호가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형식적 교육기관인 학교의 지도에서 벗어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누군가의 보호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2.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이 놀거나 휴식하고,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가지며, 부족한 공부를 하고 자기를 계발하는 시간으로 개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아동과 청소년이 정규 교육시간 이외에 경험하는 방과 후 활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가지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교내 방과 후 활동(school-based extracurricular activities)¹⁾이다. 선택적이고 학년과 무관하며 대개 학교 시설 내에서 정규 학교수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학교의 기본적 교과과정(standard courses)과는 다르다(Mahoney & Cairns, 1997). 미국의 교내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활동의 한 예를 살펴보면(Mahoney & Cairns, 1997) 운동(야구, 농구, 응원, 풋볼, 크로스 칸트리, 테니스 등...), 조교활동(음식 서비스, 도서관 · 실험실의 조교, 사무실 조교 등), 예술활동(미술, 밴드, 합창, 연극, 앙상블 등), 학생 자치단체(학급장, 학생회, 학생자치단체), 편집(저널클럽, 학교신문, 사진클럽 등), 직업 교육 클럽(자동차 클럽, 전문직 클럽, 개별교육클럽 등), 학업관련 클럽(역사, 과학, 외국어 클럽 등), 봉사(성경클럽, 시의회 활

1) after-school activities와 의미구분을 위해 교내 방과후 활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동진행보조, HOSA,...),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교내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활동은 “특기 적성교육 활동”으로 명명되어 이뤄지고 있고 활동영역 역시 교과목 관련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도시 소재 중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학생들의 참여율도 17.23%로 낮고 학교 교사에 의한 지도가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이 단지 학교 교육의 연장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적성을 반영한 자율적 성격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가지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활동(after-school activities/free-time activities)이다.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이뤄지는 활동은 수면, 식사와 같은 생리적 활동, 잡다한 일, 실외에서 이뤄지는 비구조화된 활동(배회)과 가정 밖 집단 활동(걸스카우트), 보충과목수업 등(Posner & Vandell, 1999)이다. 김미혜 등(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공부, TV시청, 집에서 놀기, 집안 일하기, 집밖에서 놀기, 친구집 놀러가기, 학원가기, 오락실, PC방 가기, 배회하기, 낮잠, 목욕, 간식, 애완동물보기 등으로 보고되었다.

형식적 교육시간 이외에 이뤄지는 활동은 개인의 취미나 관심 등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자녀와 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즉 성별, 자기보호시간, 가정의 수입,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가족구성, 어머니의 취업유무 등의 변인 및 문화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된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실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취미, 독서, 실외 놀이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장난감과 놀기, 게임하면서 노는 시간, TV시청, 배회의 성별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McHale 등, 2001).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 3,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Posner와 Vandell(1999)의 종단적 연구에서 성별 방과 후 활동을 아프리카계 미국 아동과 백인 아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과 관련 없이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학업, 사회화의 수준은 남아보다 높았다. 반면 실외에서 이뤄지는 비구조화된 활동, 허드렛일은 두 민족 모두에서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내 방과 후 활동, 구조화된 실내활동, TV시청, 이동시간 등은 민족에 따라 성별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5학년부터 8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Richard & Duckett, 1994)에서 남학생의 경우 TV시청과 스포츠를 여아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학교수업, 사회화, 일반적 여가(게임, 독서, 교과외 활동), 허드렛 일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김미혜 등(2001)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독서하기, 집안과 밖에서 놀기, PC방이나 오락실 가기를 더 많이 하고 집안일 하기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는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 공부 및 학원가기 활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공통적인 것은 문화와 계층에 관련 없이 남아는 여아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활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Posner와 Vandell(1999)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자기보호시간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는 부모의 보호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부모 가정 아동과 양친 가정 아동의 방과 후 활동수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Posner와 Vandell(1999)에 의하면 학업적 활동, 교내 방과 후 활동, 운동지도, 실내 구조화된 활동, TV시청, 사회화, 허드렛일, 이동은 차이가 없지만 비구조화된 실외놀이에 보내는 시간은 편부모자녀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아동들이 성인의 보호 없이 실외에서 비구조화된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김미혜 등의 연구(2001)에서 방과 후에 성인이나 나이든 형제의 보호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자기보호 청소년들이 독서는 더 많이 하나 학원은 더 적게 다녔다. 그 외 공부, TV시청, 집안과 밖에서 놀기, 오락실과 PC방 가기, 배회하기 등의 시간은 자기보호시간의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아동 1, 3, 5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실태 및 자기보호 정도에 따른 아동의 적응을 살펴 본 결과(Pettit, Laird, Bates, & Dodge, 1997) 자기보호 시간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아동은 사회적 유능감과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적절한 방과 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보호 시간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상 문제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집단임

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그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활동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3세부터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Bianchi & Robinson, 1997)에서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른 아동의 활동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TV시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전일제 고용모의 자녀보다 TV시청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녀들은 TV시청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집안 일하기, 독서, 공부하는 시간은 모의 취업유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청소년의 일상경험을 비교한 결과(Richard & Duckett, 1994) 남학생들의 일상경험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고용모의 남학생들이 파트 타임모 및 비취업모를 둔 또래들보다 운동은 적게 하고 TV시청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혜 등(2001)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집안에서 더 많이 놀고 낮잠이나 간식 먹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취업모의 상황과 비슷하게 편부모 가정의 자녀 역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방과 후 활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Posner & Vandell, 1999).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보다 방과후에 특히 배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일치된 사실은 어머니가 취업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면서 보낸다는 점이다.

4) 어머니의 교육수준

3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Bianchi & Robinson, 1997)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독서시간 및 TV시청과 관련이 있는 반면 공부시간 및 집안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많은 독서시간을 가지고 TV시청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의 교육수준과 독서는 정적 상관이 있지만 실외놀이, TV시청, 배회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McHale, et al., 200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Fuligni & Stevenson, 1995)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부시간, 교내 방과 후 활동참여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V시청, 일하는 시간, 혼자서 여가 보내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어린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부모 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방과 후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차이가 있고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독서시간은 적고 TV 시청 시간은 증가하며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의 공부시간도 적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가정의 월수입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

(McHale, et al., 2001)에서 가정의 수입은 스포츠 활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고, TV시청 및 배회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 독서, 실외놀이, 장남감과 놀기 및 게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시청으로 나타났다(Posner & Vandell, 1999).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입 정도에 따른 분석을 한 김미혜 등(2001)은 가정의 월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활동은 독서하기, 집밖에서 놀기, 학원가기 임을 밝혔다. 즉 가정의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들은 독서하기와 학원가기를 가장 적게 한 반면 집밖에서 놀기는 가장 많이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월수입 정도에 따른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으로 공부하기와 TV시청의 뚜렷한 차이이다. 즉 수입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할 여건이 되므로 학업적 활동을 많이 하고 수입이 적은 가정의 자녀들은 반대로 학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TV시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문화

미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학업활동, 일,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세 나라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비교한 Fuligni와 Stevenson(1995)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중국 고등학생이 일본과 미국학생보다 방과 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공부 시간은 친구와 노는 시간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공부과목은 과학보다는 수학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을 공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극소수였다.

미국 고등학생은 일본이나 중국학생과 다르게 많은 청소년이 방과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였다. 여가활동 중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은 TV시청과 또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문화간 비교한 결과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은 또래와 사교적 활동(데이트, 파티, 댄스...), 공연활동(영화, 콘서트) 및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은 또래와 구체적 목표 없이 집에서나 전화로 친구와 대화하기 및 학업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의 청소년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활동에 덜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 내 생활속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충분하고 또한 방과 후에 공부를 많이 해야하며 사용할 용돈이 적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 문화 모두에서 교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9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된 청소년 및 어머니의 특성과 가정의 수입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이뤄지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 대체적으로 청소년이 많이 참여하는 활동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학교 남녀 1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의 평균수준을 비교한 결과 학원가기와 TV시청이 가장 많이하는 활동이었고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은 애완동물 기르기와 배회로 나타났다(김미혜들, 2001).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적응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김희화, 1998)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타인의 평가 및 성공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청년기로의 전환에 따른 감소가 일어나기 쉬우므로(김희화, 1998; Wigfield, Eccles, Iver, Reuman, & Midgley, 1991)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과 함께 청소년의 중요한 적응 지표로 간주된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으로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과 학업성적, 우울,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된다.

5학년에서 9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arson, 1997)에서 혼자 있는 시간과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년기 이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의 정도와 아동의 적응간의 관계는 관련성이 낮지만 청년기가 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거나 적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이후 시간의 25% ~ 45% 정도를 혼자 보내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좋았고 부모보고에 의한 행동문제 수준은 낮으며, 교사에 의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우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응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다르게 자신들만의 독립된 시간이 청소년의 적응을 증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과 아동의 성적, 우울, 행동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년 후 5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적응상태를 분석하여 방과 후 활동의 단기적 장기적 적응을 분석한 연구(McHale et al., 2001)에 의하면 장난감과 놀기/ 게임하기, TV 시청은 아동의 적응과 장·단기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외놀이는 장·단기적으로 성적과 부적 상관, 행동문제와는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회는 장기적으로 성적과 부적이나 행

동문제와 장·단기적으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성적과는 장·단기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과 장·단기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와 스포츠 활동은 단기적으로 성적과 정적, 우울과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가 학업적 성취와 정적 상관이 있으나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유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첫째, 아동이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인지적으로 복잡하고 이러한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훨씬 분화된 자아감을 형성하고 그 결과 보다 우울증상이 명백해질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학업지향적인 아동은 다수 또래집단의 지향(orientation)과 맞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아동은 사회적 또는 학교의 압력을 피하는 수단으로써 독서를 할 수도 있다.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Galambos & Maggs, 1991)에서 방과 후에 집밖에서 보내는 남녀 학생은 또래와 많이 어울리게 되고 특히 남아와 다르게 성인의 보호 없이 방황하는 여아는 문제행동을 하기 쉽고 일탈된 또래와 어울리고 부정적 자아상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방황에 따른 문제행동의 가능성 및 낮은 부정적 자아상의 형성은 여아가 더 일어나기 쉬움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제시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Marsh(1992)는 2년 동안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참여에 따른 잇점을 제시하였다.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는 청소년의 학업성적, 우등반 수업, 과제시간, 무단결석, 내적 통제의 소재, 학업적 자아, 부모관여, 부모의 포부, 자신의 교육적·직업적 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주었다. 즉 학교에서 방과 후에 실시하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는 단기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가정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하게 하고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참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대학진학·교육적 포부 및 30세 때 직업적 포부와도 관련됨을 밝혀주었다.

미국, 중국과 일본의 세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uligni와 Stevenson(1995)은 방과 후 활동과 수학 성적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방과 후에 공부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은 높고 방과 후에 일을 하거나 TV시청을 많이 하고 친구와 많이 노는 청소년의 수학 성적은 좋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일반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중퇴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Mahoney와 Cairns(1997)는 7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활동의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밝혔다.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의 참여는 7학년에 12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년의 증가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의 참여율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참여한 집단의 중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의 초기 적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기에 유능했던 청소년 집단보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 집단의 경우 방과 후 활동의 참여에 따른 중퇴율이 학년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적응을 하는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적절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그들의 장기적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McNeal(1995)은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계층이 낮은 청소년의 중퇴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교내 방과 후 활동의 종류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방과 후 활동 중 특히 운동과 순수예술의 참여는 청소년의 중퇴를 감소시켜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설 기관에 참여한 청소년은 범죄와 폭력, 흡연, 약물사용, 성행동의 감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사회적 발달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렇게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은 방과 후의 매우 위험한 시간 동안 참석자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성인의 감독아래 건설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래의 유해한 압력으로부터 격리시킨다. 특히 흥미 있는 활동을 갈망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의 보호 하에 또래들과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은 학업적으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경, 정직 그리고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Newman, et al., 2000).

외국의 전문적 기관 및 학교 차원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적응을 증진시키고 문제행동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전문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가 거의 없고 학교 차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에 일상적 생활의 형태로 이뤄지는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방과 후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김미혜 등(2001)은 방과 후 활동을 학문활동, 실내활동, 실외활동, 허드렛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학교 적응, 성취동기, 성적) 및 사회적 발달(자존감, 공격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문활동은 학업성취 및 자존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격성은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활동은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이 있으나 자존감 및 공격성과는 정적 관련성이 있고, 허드렛 일은 학업성적, 자존감과 부적 상관이 있고 공격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업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학교적응을 잘하고 높은 성취동기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상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외 활동은 청소년의 낮은 성적, 공격성 발달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2,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옥경희, 김미해, 천희영, 2001)에서 공부하기는 성적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격 및 산만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밖에서 놀기는 그 반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방과 후에 이뤄지는 공부하기와 집밖에서 놀기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방과 후 활동과 적응 중 어느 것이 선행요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초기의 적응이 방과 후 활동의 내용을 결정하는지 반대로 방과 후 활동의 내용에 따라 적응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관계를 밝히고자 종단적 접근에 의해 실시된 Posner와 Vandell(1999)의 결과에 의하면 인종과 무관하게 3학년 때 학교생활에 성공적인 아동(성적이 좋고, 좋은 학습습관을 가지고, 정서적 적응을 잘하는 아동)이 5학년이 되었을 때 덜 성공적이었던 아동들과 다른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인종 집단에서 3학년 때 행동문제가 있는 집단의 아동은 5학년 때 소위 문제가 있다고 불리는 방과 후 활동에 보다 개입되기 쉬웠다. 이와 같이 자유시간에 개인이 선택하는 방과 후 활동은 아동의 적응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활동 역시 그들의 이후 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미국계 표본에서, 세 가지 활동(교내 방과 후 활동, 사회화, 코치가 필요한 운동)은 연속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인 아동의 경우 배회와 같은 실외 비구조화된 활동을 많이 한 아동은 장기적으로 행동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성적 및 정서적 적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는 상호 호환적 관점(transactional view)

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방과 후 활동 중 학업관련 활동은 학교적응, 학업성적과 정적 관련성이 있으나 공격성,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고 집밖에서 놀기나 배회 등의 실외활동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히 비구조화된 배회 활동을 많이 하는 아동은 장기적으로 행동문제를 일으키고 적응을 잘하는 아동은 장기적으로 방과 후 활동 중 학업관련 활동(학문적 활동)을 많이 하고 비구조화된 배회를 적게 한다는 것이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 외 TV 시청, 독서 등의 실내활동 및 운동활동과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았다.

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목표와 대립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활동을 제지하는 능력(Schaffer, 1996, 486p) 또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송명자, 1996)으로 정의 된다. 이경남(2000)은 자기통제력을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rody와 Flor(1997)는 자기통제력이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잘 구별하여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인지적-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Kendall & Wilcox, 1979, p.1021).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계획 능력 및 평가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소와 심사숙고한 결과로서 선택한 행동을 수행하거나 인지적으로 무시되어야 할 행동은 억제하는

능력과 같은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간프레슨과 허쉬(1990)는 자기통제력의 수준에 따른 개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민수홍, 1996, 재인용). 첫째,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욕구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현재 지향적인 경향이 있어 미래에 약속된 혜택이나 이익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손쉬운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행동을 할 때 근면하거나 지속적인 경향이 없다. 셋째,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조심성이 있고 인지적이고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나 낮은 사람은 모험심이 있고 활동적이고 몸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 그들이 반드시 반사회적이거나 불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범죄와 비범죄적 행위 모두에서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좌절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좌절을 경험할 때 이를 말보다는 신체적 수단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통제력은 2세경 양육자의 지시나 요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수동적 형태로 나타나나(Howes & Olenick, 1986) 2~3세경 본격적인 자기통제가 나타난다. 부모의 지시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평소에 만지지 못하게 하는 물건에 손이 가다가도 '안돼'라고 혼자말을 하면서 손을 움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Bullock & Lutkenhaus, 1990).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책략이 발달하고 인지적 성숙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은 발달해 나간다.

자기통제력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그들의 학업성공(김현숙, 1999), 도덕성 발달(하영희, 2001)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문제행동 예방의 요인으로 강조되는 점이다.

자기통제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김선희와 김경연, 1999; 민수홍, 1996; Brannigan, Gemmell, pevalin, & Wade, 2002)와 밀접한 것으로 보고된다. 4세부터 11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Brannigan, et al., 2002)에서 과잉활동성은 문제행동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민수홍, 1996) 자기통제력이 낮은 초등학생은 다른 초등학생보다 불법행위와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신 역시 범죄 피해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과 행동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선희와 김경연, 1999)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였다.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경, 2001). 자기통제력이 발달된 아동은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Feldman & Weinberger, 1994). 낮은 충동통제는 일탈한 또래와 접촉 및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Galambos & Maggs, 1991).

특히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가치관 혼란, 규범의 와해, 가족 기능의 저하, 개인주의 사고의 확산과 같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유가 보장되는 방과 후 생활 동안 청소년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자기통제력의 발달이 방과 후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5. 어머니 감독

부모감독은 자녀가 가는 장소, 하는 활동, 동반하는 친구에 대한 부모의 지식(Stattin & Kerr, 2000)으로 청소년의 적응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자율성이 증가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시간이나 활동내용 등에 대해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 따라서 자녀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활동을 하는지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들의 활동이나 친구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나유미와 임연진(2002)에서, 부모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청소년보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도 부모가 1학년 이후부터 자신의 일상생활을 잘 모를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자녀가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가 자녀를 덜 감독하게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덜 밝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할지라도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적응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청년기의 낮은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학업수행,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Crouter 들(1990)은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정의 9학년과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감독과 학업성적간의 관련성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남학생에게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무관하게 부모감독이 낮은 남학생은 높은 남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이 낮은 학생들은 학습문제도 많은 것으로 부모에 의해 지각되어 부모감독은 자녀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감독이 낮은 남학생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부모감독이 높은 남학생이나 여학생보다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7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감독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Jacobson, 2000)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남녀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적, 낮은 수준의 성행동, 낮은 비행 및 여학생의 낮은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감독은 전일제 취업모를 둔 남녀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파트타임 어머니의 청소년 및 비취업모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파트타임 어머니의 감독이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한 경우 남학생에 대한 부모감독은 비행 예방을 위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발생 여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훨씬 높으므로 취업모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 준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문제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부모의 역할로서 부모 감독이 중요한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약물사용과도 부적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Steinberg & Fletcher, 1994).

이와 같이 효율적인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비행, 성행동, 약물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supervision)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감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연구에서 결과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박진경과 도현심(2001)은 국내 중학교 3학년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감독수준을 비교

하고 어머니의 감독수준에 따른 청소년 비행 및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감독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취업모의 감독 수준이 취업모의 감독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감독이 남녀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여학생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 감독의 영향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학생 1학년과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해 등(2001)의 연구에서도 공격성과 어머니 감독 간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나유미와 임연진, 2003) 어머니의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일탈행동 및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감독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우울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역할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감독에 관심을 가지거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모역할로서 부모감독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자유로운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역할로서 부모감독의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드물다. 즉 아동과 다르게 청소년은 자기보호가 가능한 시간이 증가하여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와 감독없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특히 모의 취업에 따라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한 부모의 역할로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Galambos와 Maggs(1991)는 청소년의 다양한 방과 후 보호로써 성인의 보호를 받는 정도에 따라 성인보호, 집에서 자기보호, 친구집에서 자기보호, 그리고 방황하는 자기보호로 유형을 구분하고 성인의 감독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자기상의 특징을 제시해 주었다.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방황할수록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보호 없이 방황하는 여아는 문제행동을 많이 하게되고 일탈된 또래와 많이 접촉하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방과 후 방황에 따른 부적응의 영향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6학년을 대상으로 종단적 접근을 통해 Pettit 등(1999)은 초기 청년기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방과 후 또래접촉의 영향에서 부모 모니터링의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독이 적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방과 후 또래접촉이 많아질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자유로운 방과후 활동과정에서 또래접촉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부모감독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가설

공 백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한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3학년 청소년과 그의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어머니 응답지의 회수에 대한 담임교사의 협조가 가능해야 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유의 표집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소재 3개구를 선정하였고 3개구에 소재한 학교 중 담임교사의 조사 협조가 가능한 5개 학교에서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전체 학급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용은 담임 교사가 어머니가 계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고 어머니용은 자녀를 통해 담임교사가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선정된 표본은 514명이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청소년용과 어머니용이 모두 회수된 수는 478부이었다. 이들 중 청소년이나 어머니의 응답이 불성실한 24부를 제외한 454부만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징은 <표 III-1>과 같다.

청소년의 성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214명(47.10%) 여학생은 240명(52.90%)이었고 학년별 구성을 살펴 본 결과 1학년 160명(35.20%), 2학년 154명(34.00%), 3학년은 140명(30.8%)이었다.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을 살펴본 결과 자기보호시간이 없는 청소년이 107명(23.90%)이고 2시간 이내가 180명(40.20%)이며 2시간 이상이 160(35.90%)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5%의 청소년이 자기보호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졸이하 73명(17.00%), 고졸 268명(62.20%), 전문대졸 이상이 90명(20.80%)이었고 취업모가 203명으로 46.5%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93가정(21.40%), 151만원 ~ 250만원 이하가 181가정(41.70%), 251만원이상이 160가정(36.90%)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구 분	빈도	백분율
청소년 성별	남	214	47.10
	여	240	52.90
	무응답	0	
청소년 학년	1	160	35.20
	2	154	34.00
	3	140	30.80
	무응답		
청소년 자기보호시간	없음	107	23.90
	일평균 2 시간 이내	180	40.20
	일평균 2시간 이상	160	35.90
	무응답	6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73	17.00
	고졸	268	62.20
	전문대졸 이상	90	20.80
	무응답	23	
어머니 직업	없음	234	53.50
	있음	203	46.50
	무응답	17	
가정의 월수입	150만원이하	93	21.40
	151만원이상-250만원이하	181	41.70
	252만원이상	160	36.90
	무응답	20	

* 비율계산에서 무응답은 제외시킴

2. 측정도구

청소년에게 사용된 측정도구는 방과 후 활동,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자기통제력이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감독 도구가 사용되었다. 각 측정도구의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방과 후 활동'은 형식적 교육시간이 끝난 이후 학교 밖이나 가정에서 이뤄지는 청소년의 활동으로써 학교에서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다.

방과 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연구(김미혜 등, 2001; McHale, et al., 2001; Posner & Vandell, 1999)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사실을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형식적 교육시간 이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간에 이뤄지는 활동으로 청소년 및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이뤄진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 각각에 비중을 적게 두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별이나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방과 후 활동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방과 후 활동의 유형을 가정에서 혼자 공부하기, 학원 공부, TV·비디오시청, 독서, 운동, 컴퓨터게임·채팅, 노래방·만화방 가기, 친구와 또는 혼자서 배회하기, 봉사활동, 공연·영화관람 등으로 선정하였다. 응답방식은 해당 활동을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해당하는 범주에 응답케 하였다. 응답범주는 '없다'부터 '월 평균 1-4시간', '주 평균 1시간 이내', '주 평균 1시간-2시간 이내', ... '일 평균 2시간-3시간 이내', '일 평균 3시간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

0점부터 9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활동을 방과 후에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2)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행동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김희화, 2001; 유혜경, 1986)를 토대로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비행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항을 작성하였다. 음주, 흡연, 부모님 허락없이 외박하기, 남을 때린 경험, 가출, 이성과 성경험, 패싸움, 남의 돈 뺏기 등의 일반적 비행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항 외 중학교 담임교사가 제시한 수업시간 산만함이나 교사에게 말대꾸하기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은 최근 6개월 간 이뤄진 청소년의 문제행동정도를 나타내게 하였다. 응답범주는 빈도를 고려하여 등간 척도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없었다', '1회', '2-3회', '4-5회', '자주' 등으로 제시하였고 범주에 대해 '0점'부터 '4점'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이 .80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김희화(199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다양한 자아존중감 영역을 고려하여 개발된 도구로써 자아존중감 구성 영역은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등으로 이뤄졌다. 전체문항은 49문항이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반응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에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전체변량의 55.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로 실시한 결과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이 .75 ~ .90으로 나타났다.

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민수홍, 1996; Kendall & Wilcox, 1979)를 참고로 하여 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통제력 척도를 작성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행동이전에 생각하는 태도, 시작한 행동에 대한 지속성,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통제나 행동적 통제 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이 .63으로 나타났다.

5) 어머니 감독

어머니 감독을 측정하기 위해 Stattin과 Kerr(2000)가 사용한 부모 감독척도 8문항과 본 연구자가 4문항을 추가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된 4문항은 최근 인터넷 관련 문제나 인터넷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어머니가 가정내외에서 이뤄지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감독내용 3문항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감독내용 1문항을 추가하였다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모른다'부터 '매우 많이 안다'의 '1점'부터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모의 감독에 대한 연구에서 모의 감

독을 청소년의 지각된 모의 감독과 실제 어머니의 감독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지각보다 모의 지각을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의 자유활동 시간관리를 감독하는 측면에서 주체는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실제 감독정도가 청소년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이 .92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별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 유형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성별, 자기보호시간, 모의 취업유무, 교육수준 및 가정의 수입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2의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각 영역과 방과 후 활동 각 영역간의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분석으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방과 후 활동 즉 공부활동, 컴퓨터게임·채팅, 배회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및 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을 방과 후 활동으로 하여 분석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중재변인과 독립변인×중재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난 경우에는 단순 주효과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0.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공 백

IV. 연구결과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가설

공 백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실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방과 후 활동 유형별로 활동시간 비율을 살펴보고 청소년, 어머니 및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수준을 비교하였다.

1) 청소년의 방과 후 활의 시간별 비율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시간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방과 후 각 활동의 참여시간을 하루, 일주일 및 월 단위별로 계산하여 응답하게 한 후 각 활동에 따른 응답 빈도 및 비율을 방과 후 활동별로 살펴보았다.

(1) 혼자공부

방과 후 혼자서 공부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혼자공부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시간대별로 비교해 보면 일 평균 1시간 이내에 공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 평균 1-2시간 이내로 공부하는 청소년이 18.0%로 나타나 청소년 중 약 43%가 일 평균 2시간 이내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 평균 1시간 이내나 월 평균 1-4시간 이내, 또는 공부시간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도 각각 10.4%, 11.8%, 와 3.1%로 나타나 공부를 거의 안하는 청소년도 25%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 혼자공부활동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6.2	28
일 평균 2-3시간 이내	8.4	38
일 평균 1-2시간 이내	18.0	81
일 평균 1시간 이내	25.3	114
주 평균 3시간 이상	6.9	31
주 평균 2-3시간 이내	5.1	23
주 평균 1-2시간 이내	4.7	21
주 평균 1시간 이내	10.4	47
월 평균 1-4시간 이내	11.8	53
없 다	3.1	14

(2) 학원공부

방과 후 학원공부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일 평균 3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4.8%이고 일 평균 2-3시간 이내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27.6%이며 일 평균 1-2시간 이내 및 1시간 이내는 각각 8.1%와 1.4%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학원공부를 하러 학원을 매일 가는 청소년이 약 70% 정도이고 약 60%이상의 청소년이 일 평균 2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도 23.8%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의 청소년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은 방과 후 활동으로 매일 학원공부를 하는 집단과 안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하는 집단이 안하는 집단보다 3배정도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 IV-1>에서 매일 3시간 이상 혼자공부하는 청소년이 6.2%로 나타난 결과와 34.8%의 청소년이 매일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방과 후 청소년이 학업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혼자서 하는 시간보다 학원강사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는

〈표 IV-2〉 학원공부활동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34.8	154
일 평균 2-3시간 이내	27.6	122
일 평균 1-2시간 이내	8.1	36
일 평균 1시간 이내	1.4	6
주 평균 3시간 이상	1.4	6
주 평균 2-3시간 이내	0.5	2
주 평균 1-2시간 이내	0.0	0
주 평균 1시간 이내	0.2	1
월 평균 1-4시간 이내	2.3	10
없 다	23.8	105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TV · 비디오시청

방과 후에 TV·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TV·비디오 시청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25.4	115
일 평균 2-3시간 이내	19.6	89
일 평균 1-2시간 이내	21.2	96
일 평균 1시간 이내	13.0	59
주 평균 3시간 이상	5.3	24
주 평균 2-3시간 이내	4.4	20
주 평균 1-2시간 이내	4.0	18
주 평균 1시간 이내	2.2	10
월 평균 1-4시간 이내	3.8	17
없 다	1.1	5

TV나 비디오 시청을 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5.4%이고 평균 2-3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1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 평균 1-2시간 이내 및 1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각각 21.2%와 13.0%로 나타나 약 80%의 청소년이 매일 TV·비디오 시청을 하고 약 45%의 청소년이 하루에 2시간 이상 TV나 비디오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독서

방과 후 독서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독서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2.2	10
일 평균 2-3시간 이내	5.4	24
일 평균 1-2시간 이내	12.7	57
일 평균 1시간 이내	21.0	94
주 평균 3시간 이상	9.8	44
주 평균 2-3시간 이내	5.8	26
주 평균 1-2시간 이내	6.3	28
주 평균 1시간 이내	14.5	65
월 평균 1-4시간 이내	17.4	78
없 다	4.9	22

독서를 일 평균 1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2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 평균 1-2시간 이내로 읽는 비율이 12.7%로써 청소년의 1/3정도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IV-4>에서 80%의 청소년이 매일 1시간 이상

TV나 비디오시청을 하고 있는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독서시간이 지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평균 1-4시간과 주 평균 1시간 이내의 비율이 각각 17.4%와 14.5%이고 읽지 않는 비율이 49%임을 감안해 보면 청소년의 1/3정도는 독서를 일주일에 1시간 이하로 하거나 거의 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운동

방과 후 운동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운동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2.2	10
일 평균 2-3시간 이내	4.0	18
일 평균 1-2시간 이내	11.8	53
일 평균 1시간 이내	21.8	98
주 평균 3시간 이상	11.1	50
주 평균 2-3시간 이내	7.6	34
주 평균 1-2시간 이내	5.6	25
주 평균 1시간 이내	9.8	44
월 평균 1-4시간 이내	14.9	67
없 다	11.3	51

운동을 일 평균 1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21.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 평균 1-2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11.7%로써 청소년의 1/3정도는 하루에 2시간 이하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일 평균 TV시청 시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평균 1-4시간 비율과 하지 않는 비율이 각

각 14.9%와 11.3%로 나타나 방과 후에 운동을 거의 안하는 청소년도 ¼정도임을 알 수 있다.

(6) 컴퓨터 게임·채팅

방과 후 컴퓨터 게임·채팅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컴퓨터 게임·채팅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17.7	80
일 평균 2-3시간 이내	18.1	82
일 평균 1-2시간 이내	24.9	113
일 평균 1시간 이내	14.8	67
주 평균 3시간 이상	7.7	35
주 평균 2-3시간 이내	4.4	20
주 평균 1-2시간 이내	2.0	9
주 평균 1시간 이내	4.0	18
월 평균 1-4시간 이내	5.1	23
없 다	1.3	6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을 일 평균 1-2시간 이내 및 일 평균 2-3시간 이내의 비율로 하는 비율이 각각 24.9%와 18.1%이고 일 평균 3시간 이상은 17.7%이고 일 평균 1시간 이내도 14.8%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약 75%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등으로 컴퓨터를 학습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청소년의 ½이상이 일 평균 2시간 이상이나 컴퓨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중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비율도 적지 않음을 제시해 준다.

(7) 노래방·만화방 가기

방과 후 노래방·만화방 가기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노래방·만화방 가기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2.9	13
일 평균 2-3시간 이내	2.2	10
일 평균 1-2시간 이내	3.6	16
일 평균 1시간 이내	4.7	21
주 평균 3시간 이상	10.3	46
주 평균 2-3시간 이내	8.1	36
주 평균 1-2시간 이내	15.7	70
주 평균 1시간 이내	11.8	49
월 평균 1-4시간 이내	29.8	133
없 다	11.7	52

노래방이나 만화방 출입은 월 평균 1-4시간 이내의 비율이 29.3%, 주 평균 1시간 이내와 1-2시간 이내의 비율이 각각 10.8%와 15.4%로 나타났다. 반면 일단위로 하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방이나 만화방 출입을 매일 단위로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소수임을 제시해 주고 방과 후에 노래방이나 만화방 가기는 주말과 같이 일찍 학업이 끝나는 날에 주로 이뤄지는 방과 후 활동임을 알 수 있다.

(8) 배회

방과 후 배회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배회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9.3	39
일 평균 2-3시간 이내	6.0	25
일 평균 1-2시간 이내	7.9	33
일 평균 1시간 이내	16.7	70
주 평균 3시간 이상	13.1	55
주 평균 2-3시간 이내	8.1	34
주 평균 1-2시간 이내	9.8	41
주 평균 1시간 이내	5.5	23
월 평균 1-4시간 이내	17.1	72
없 다	6.7	28

배회를 월 평균 1-4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과 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하는 비율이 각각 17.1%와 13.1%이고 일 평균 1시간 이내의 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배회는 규칙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매일 이뤄지는 경우와 매주나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방과 후 활동임을 제시해 준다.

(9) 봉사활동

방과 후 봉사활동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봉사활동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0.9	4
일 평균 2-3시간 이내	1.8	8
일 평균 1-2시간 이내	0.9	4
일 평균 1시간 이내	2.0	9
주 평균 3시간 이상	1.3	6
주 평균 2-3시간 이내	0.4	2
주 평균 1-2시간 이내	2.0	9
주 평균 1시간 이내	3.7	17
월 평균 1-4시간 이내	49.3	224
없 다	33.0	150

봉사활동을 월 평균 1-4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49.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주 평균 1시간 이내가 3.7%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간대별 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도 33.0%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활동이 학년 단위로 일정시간을 해야하는 활동임에 따라 본 연구 조사 당시 하지 않은 청소년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공연·영화관람

방과 후 공연 및 영화관람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공연·영화관람의 시간별 비율

시 간	비율(%)	빈도(명)
일 평균 3시간 이상	1.3	6
일 평균 2-3시간 이내	1.1	5
일 평균 1-2시간 이내	3.1	14
일 평균 1시간 이내	1.8	8
주 평균 3시간 이상	2.4	11
주 평균 2-3시간 이내	4.2	19
주 평균 1-2시간 이내	9.3	42
주 평균 1시간 이내	4.8	22
월 평균 1-4시간 이내	53.3	242
없 다	15.0	68

공연·영화관람을 월 평균 1-4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5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 평균 1-2시간 이내가 9.3%, 주 평균 1시간 이내, 2-3시간 이내 및 3시간 이상이 각각 4.8%와 4.2%, 2.4%로 나타나 주 단위로 하는 청소년도 약 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간대별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연·영화관람은 주로 월 단위나 주단위로 이뤄지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정도를 비교하고자 방과 후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점수화하여 비교하였다. 각 활동별 응답반응 범주에 따라 '없다'는 '0점', '월평균 1-4시간이내'는 '1점'을 부여하고 반응범주가 올라감에 따라 1점씩 추가하여 마지막으로 일 평균 3시간 이상은 '9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방과 후에 그 활동에 보내는 시

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전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 어머니, 가정의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전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일반적 실태

전체 청소년의 각 방과 후 활동에 보내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 IV-1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TV·비디오 시청(M=6.76)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컴퓨터게임·채팅(M=6.42), 학원공부(M=6.11), 혼자공부(M=5.03) 등의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배회(M=4.41), 독서(M=4.15), 운동(M=4.02)으로 나타났고 노래방·만화방가기(M=2.80)의 정도는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공연·영화관람(M=1.79)과 봉사활동의 정도(M=1.17)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학생은 방과 후에 TV, 컴퓨터 등의 매체 앞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공부도 그 시간 못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 전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평균점수

	M	SD
혼자공부	5.03	2.57
학원공부	6.11	3.68
TV·비디오시청	6.76	2.23
독서	4.15	2.55
운동	4.02	2.62
컴퓨터게임·채팅	6.42	2.28
노래방·만화방	2.80	2.33
배회	4.41	2.75
봉사활동	1.17	1.75
공연·영화관람	1.79	1.95

(2) 청소년의 성별,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한 결과 <표 IV-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12>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원공부($t=2.68, p<.01$), TV·비디오시청($t=-3.48, p<.001$), 독서($t=3.27, p<.01$), 운동($t=12.44, p<.001$), 노래방·만화방 출입($t=5.77, p<.001$), 봉사활동($t=2.12,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원공부, 독서, 운동, 노래방·만화방 출입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V·비디오 시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하는 방과 후 활동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간의 혼자공부 시간, 컴퓨터게임·채팅, 배회 및 공연·영화관람 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남학생		여학생		t 값
	M	(SD)	M	(SD)	
혼자공부	5.24	(2.58)	4.85	(2.55)	1.60
학원공부	6.60	(3.42)	5.68	(3.84)	2.68**
TV·비디오시청	6.38	(2.16)	7.10	(2.25)	-3.48***
독서	4.56	(2.52)	3.78	(2.52)	3.27**
운동	5.41	(2.03)	2.76	(2.45)	12.44**
컴퓨터게임채팅	6.51	(2.05)	6.35	(2.48)	.75
노래방·만화방	3.45	(2.34)	2.22	(2.16)	5.77***
배회	4.42	(2.66)	4.41	(2.83)	.06
봉사활동	1.36	(1.85)	1.00	(1.65)	2.12*
공연·영화관람	1.89	(2.03)	1.71	(1.89)	.96

* $p<.05$, ** $p<.01$, *** $p<.001$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차이검증을 한 결과 <표 IV-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3>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 정도에 따라 혼자 공부(F=3.08, p<.05), 학원공부(F=15.16, p<.001), 컴퓨터 게임·채팅(F=4.02, p<.05), 공연·영화관람(F=3.97, p<.05)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혼자공부는 자기보호시간이 없는 집단과 2시간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 집단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방과 후에 혼자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원공부는 자기보호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집단이 자기보호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집단과 자기보호 시간이 없는 집단보다 적게 하는

<표 IV-13>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없 음	2시간미만	2시간이상	F 값
	M (SD)	M (SD)	M (SD)	
혼자공부	5.48 (2.45)a	5.13 (2.54)ab	4.70(2.61)b	3.08*
학원공부	6.65 (3.37)a	6.94(3.12)a	4.90(4.08)b	15.16***
TV·비디오시청	6.80 (2.11)	6.48(2.12)	6.98(2.41)	2.16
독서	4.19 (2.36)	4.31(2.52)	3.95(2.65)	.88
운동	4.12 (2.74)	3.93(2.59)	3.96(2.54)	.19
컴퓨터게임·채팅	5.87 (2.52)b	6.56 (1.95)a	6.61(2.36)a	4.02*
노래방·만화방	2.58 (2.17)	2.72 (2.23)	2.88(2.41)	.56
배회	3.88 (2.83)	4.47 (2.63)	4.63(2.75)	2.30
봉사활동	1.50 (2.07)	.98(1.38)	1.15(1.88)	2.86
공연·영화관람	2.26 (2.35)a	1.65(1.76)b	1.63(1.82)b	3.97*

*p<.05,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채팅은 자기보호시간이 있는 두 집단이 자기보호시간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영화관람은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자기 보호시간이 없는 청소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시간 정도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이 차이가 나고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학업적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들이 유념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즉 맞벌이 가족 및 핵가족의 증대와 같은 가족상황의 변화 그리고 부모들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인정함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할 시간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는 바 지나친 컴퓨터 사용에 따른 인터넷 비행, 중독 등의 부수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모들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교육수준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각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IV-14>와 <표 IV-1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14>에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독서시간($t=3.02, p<.05$)과 컴퓨터 게임·채팅 시간($t=-1.80, p<.10$)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취업모의 자녀보다 독서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은 취업모의 자녀들이 많이 하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대신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표 IV-1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평균차 검증

	없 음	있 음	t 값
	M (SD)	M (SD)	
혼자공부	5.24 (2.53)	4.87 (2.61)	1.52
학원공부	6.25 (3.62)	6.13 (3.68)	.35
TV·비디오시청	6.73 (2.14)	6.72 (2.33)	.02
독 서	4.44 (2.48)	3.71 (2.54)	3.02**
운 동	3.97 (2.68)	3.95 (2.54)	.11
컴퓨터게임·채팅	6.30 (2.32)	6.68 (2.12)	-1.80+
노래방·만화방	2.73 (2.32)	2.77 (2.28)	-.17
배회	4.37 (2.74)	4.43 (2.73)	-.22
봉사활동	1.15 (1.61)	1.11 (1.81)	.27
공연·영화관람	1.82 (1.96)	1.72 (1.93)	.54

+P<.10, **p<.01

<표 IV-15>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F값
	M (SD)	M (SD)	M (SD)	
혼자공부	4.58 (2.55)b	5.06 (2.61)ab	5.57(2.37)a	2.95+
학원공부	5.47 (4.05)b	6.13 (3.65)ab	7.14(2.96)a	4.36*
TV·비디오시청	7.18 (2.40)a	6.70 (2.23)	6.24(2.09)b	3.41*
독 서	3.60 (2.57)	4.19 (2.54)	4.26 (2.48)	1.65
운 동	3.51 (2.60)	3.97 (2.61)	4.26 (2.68)	1.57
컴퓨터게임채팅	6.51 (2.10)	6.52 (2.33)	6.45 (2.24)	.76
노래방만화방	2.66 (2.39)	2.76 (2.34)	2.67 (1.98)	.08
배회	4.78 (2.67)	4.29 (2.76)	4.37 (2.70)	.86
봉사활동	1.09 (1.84)	1.16 (1.76)	1.01 (1.40)	.28
공연·영화관람	1.62 (1.84)	1.75 (1.91)	1.80 (2.00)	.17

+P<.10, *p<.05

<표 IV-15>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방과 후 활동 영역은 혼자공부 ($F=2.95, p<.10$), 학원공부($F=4.36, p<.05$), TV·비디오시청($F=3.41, p<.05$)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의 청소년이 중졸이하인 청소년의 집단보다 혼자공부 및 학원공부를 방과 후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TV·비디오 시청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녀들이 공부는 많이 하는 반면 매체접촉은 낮음을 제시해 준다.

(4) 가정의 수입에 따른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차이

가정의 수입에 따라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V-16>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6> 가정의 수입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150만원 이하 M (SD)	151만원- 250만원이하 M (SD)	251만원이상 M (SD)	F 값
혼자공부	4.69 (2.65)	5.07 (2.56)	5.26 (2.52)	1.38
학원공부	4.90 (4.16) ^b	6.18 (3.58) ^a	6.75 (3.30) ^a	7.34***
TV·비디오시청	7.12 (2.03)	6.74 (2.33)	6.59 (2.16)	1.67
독서	3.90 (2.45)	4.19 (2.56)	4.28 (2.57)	.67
운동	3.67 (2.47)	4.10 (2.56)	3.99 (2.74)	.81
컴퓨터게임·채팅	6.21 (2.41)	6.57 (2.21)	6.45 (2.24)	.76
노래방·만화방	2.95 (2.45)	2.87 (2.37)	2.60 (2.17)	.85
배회	4.70 (2.82)	4.34 (2.75)	4.31 (2.69)	.61
봉사활동	1.11 (1.85)	1.25 (1.79)	1.09 (1.6)	.69
공연·영화관람	1.48 (1.94)	1.79 (1.88)	1.97 (2.06)	.18

*** $p<.001$

<표 IV-16>에 의하면 가정의 수입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학원공부시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F=7.3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집단의 청소년이 그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학원을 적게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에 따라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현실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2.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1) 청소년, 어머니,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을 자아존중감 각 영역 별로 살펴본 결과 <표 IV-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7>의 결과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학업적 자아($t=5.13$, $p<.001$), 성격적 자아($t=3.17$, $p<.01$), 신체외모자아($t=6.36$, $p<.001$) 및 신체능력자아($t=5.47$, $p<.001$)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기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업적인 면에서나 신체외모 및 운동능력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남학생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부모나 교사 친구 등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성별

〈표 IV-17〉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자아존중감	남학생		여학생		t값
	M	SD	M	SD	
가정적 자아	22.82	(4.06)	22.21	(5.12)	1.40
친구관련자아	34.20	(6.69)	34.31	(7.51)	-.152
교사관련자아	17.11	(3.82)	17.36	(3.64)	-.708
학업적 자아	26.63	(6.24)	23.47	(6.68)	5.13***
성격적 자아	18.27	(4.73)	16.84	(4.78)	3.17 **
신체외모자아	22.70	(5.23)	19.68	(4.84)	6.36***
신체능력자아	19.81	(4.66)	17.38	(4.74)	5.47***

p<.01 *p<.001

과는 무관하게 나타나 초기청소년기에 대인관계적 장면에서 발달하는 자아존중감은 성별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가족원과 보내는 시간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18>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8>의 결과에 의하면 방과 후에 혼자보내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교사관련 자아(F=3.32, p<.05)와 학업적 자아(F=5.95, p<.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혼자보내는 시간이 없는 청소년이 2시간 이상 혼자보내는 청소년보다 교사관련 자아와 학업적 자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혼

자 보내는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의 장에서 학업적 지원자인 교사와의 관계에서나 학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8>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없 음	2시간미만	2시간이상	F 값
	M (SD)	M (SD)	M (SD)	
가정적 자아	23.21 (3.88)	22.65 (5.15)	22.00 (4.47)	2.15
친구관련자아	34.04 (6.54)	34.81 (7.74)	33.87 (6.93)	.81
교사관련자아	17.80 (3.59)a	17.44 (3.87)ab	16.67 (3.54)b	3.32*
학업적 자아	26.00 (6.21)a	25.68 (7.35)ab	23.53 (5.98)b	5.95**
성격적 자아	17.88 (4.46)	17.55 (5.07)	17.46 (4.71)	.25
신체외모자아	21.05 (5.02)	21.33 (5.86)	20.90 (4.71)	.28
신체능력자아	18.48 (5.03)	18.36 (5.18)	18.72 (4.45)	.23

*p< .05, **p<.01

(3)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V-19>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19>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에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t=2.27$, $p<.05$), 교사관련 자아($t=1.68$, $p<.10$), 학업적 자아($t=2.67$, $p<.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 생활과 학업생활면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상을 형성하기 쉬움을 반영한다. 물론 다른 관련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나 이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표 IV-19〉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없음 M (SD)	있음 M (SD)	t 값
가정적 자아	23.05 (4.60)	22.03(4.69)	2.27*
친구관련자아	34.76(7.44)	33.84(6.79)	1.32
교사관련 자아	17.55(3.94)	16.95(3.38)	1.68+
학업적 자아	25.88(6.65)	24.15(6.65)	2.67**
성격적 자아	17.48(4.89)	17.74(4.66)	-.56
신체외모자아	21.18(5.43)	21.08(5.18)	.20
신체능력자아	18.61(5.03)	18.28(4.72)	.71

+P<.10, *p<.05, **p<.01

(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20>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20>의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적 자아(F=6.58, p<.01)와 신체외모 자아(F=6.94, p<.0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졸이상의 어머니 자녀들이 중졸이하 어머니 자녀들보다 학업적으로나 신체외모면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중졸이하 M (SD)	고 졸 M (SD)	대졸이상 M (SD)	F값
가정적 자아	22.29 (4.90)	22.67 (4.53)	22.69 (4.97)	.19
친구관련자아	33.32 (6.91)	34.58 (7.07)	34.90 (7.61)	1.05
교사관련자아	17.01 (3.42)	17.18 (3.63)	17.88 (4.12)	1.42
학업적 자아	22.90 (5.82) ^b	25.16 (6.61) ^{ab}	26.72 (6.87) ^a	6.58**
성격적 자아	17.47 (4.93)	17.64 (4.73)	17.52 (4.92)	.04
신체외모자아	19.58 (4.22) ^b	21.00 (5.36) ^{ab}	22.68 (5.52) ^a	6.94***
신체능력자아	18.59 (4.26)	18.35 (4.90)	19.18 (5.43)	.93

p<.01 *p<.001

(5) 가정의 수입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가정의 수입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21>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21>의 결과에서 가정의 수입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적 자아(F=3.56, p<.05)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 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수입이 251만원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150만원 이하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가정의 수입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150만원 이하 M (SD)	151만원- 250만원이하 M (SD)	251만원이상 M (SD)	F 값
가정적 자아	22.11 (4.74)	22.69 (4.62)	22.75 (4.69)	.58
친구관련자아	34.08 (7.30)	33.99 (7.03)	34.85 (7.18)	.66
교사관련자아	17.41 (3.62)	17.08 (3.61)	17.36 (3.99)	.32
학업적 자아	23.90 (7.06) ^b	24.77 (6.44) ^{ab}	26.13 (6.55) ^a	3.56*
성격적 자아	17.24 (5.04)	17.68 (4.91)	17.66 (4.53)	.29
신체의외모자아	20.92 (5.03)	20.69 (5.26)	22.00 (5.39)	2.77+
신체능력자아	18.19 (4.59)	18.46 (4.98)	18.72 (4.88)	.34

+P<.10, *p<.05

2)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방과 후 활동의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표 IV-22>, <표 IV-23>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공부활동은 활동성격이 유사한 혼자공부와 학원공부시간을 합친 것이고 배회는 노래방·만화방출입점수와 배회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노래방이나 만화방 출입시간과 배회를 합산한 이유는 배회하면서 하는 활동을 청소년에게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배회 중 오락실, 만화방, 노래방등에 들르거나, 쇼핑한다는 응답이 나와 만화방, 노래방 가기 활동은 처음부터 방과 후 활동으로 정해서 하는 활동이기 보다는 배회 중에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배회영역에 포함시켰다.

〈표 IV-22〉남학생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공부 활동	TV· 비디오	독서	운동	컴퓨터 게임·채팅	배회	봉사 활동	공연· 영화관람
가정적 자아	.14*	-.14*	.13	.06	-.09	-.06	.08	-.03
친구관련자아	.16*	-.09	.22*	.16*	.04	.10	.06	.07
교사관련자아	.18*	-.05	.06	.02	-.04	-.01	.04	.01
학업적 자아	.35***	-.11	.22*	.07	-.15*	-.18*	.06	.03
성격적 자아	-.04	-.03	.01	.05	.01	-.05	.12	-.08
신체외모자아	.07	.05	.13	.02	.08	.01	-.01	-.04
신체능력자아	.05	-.02	.07	.33*	.08	.05	.03	.03

* $p < .05$, *** $p < .001$

〈표 IV-22〉에서 남학생의 방과 후 활동 중 공부활동은 가정적 자아($r=.14$, $p<.10$), 친구관련 자아($r=.16$, $p<.05$), 교사관련 자아($r=.18$, $p<.05$), 학업적 자아($r=.35$,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은 가정적 자아($r=-.14$, $p<.10$)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는 친구관련 자아($r=.22$, $p<.05$) 및 학업적 자아($r=.22$, $p<.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도 친구관련 자아($r=.16$, $p<.05$) 및 신체능력 자아($r=.33$, $p<.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독서와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컴퓨터 게임·채팅($r=-.15$, $p<.05$), 그리고 배회($r=-.18$, $p<.05$)는 학업적 자아와 각각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배회는 독서와 반대로 학업적인 면에서 유능감을 저해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봉사활동, 공연 및 영화관람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표 IV-23 〉 여학생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공부 활동	TV· 비디오	독서	운동	컴퓨터게 임·채팅	배회	봉사 활동	공연· 영화관람
가정적 자아	.18*	-.03	.01	-.03	-.05	-.12	-.06	-.02
친구관련자아	.10	-.11	.02	-.04	-.01	.13	-.04	.09
교사관련자아	.16*	-.14*	.12	-.04	-.24**	-.17*	.01	.01
학업적 자아	.22**	-.10	.13*	-.10	-.13*	-.15*	.09	.09
성격적 자아	.12	.01	.08	.10	-.06	-.01	.04	.04
신체외모자아	.07	-.17**	-.08	.03	-.12	-.08	.11	.11
신체능력자아	-.03	-.11	.02	.03	-.07	.06	.12	.12

* $p < .05$, ** $p < .01$

〈표 IV-23〉에서 여학생의 방과 후 활동 중 공부활동은 가정적 자아($r=.18$, $p<.05$), 교사관련 자아($r=.16$, $p<.05$), 학업적 자아($r=.22$,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은 교사관련 자아($r=-.14$, $p<.05$) 및 신체외모 자아($r=-.17$, $p<.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는 학업적 자아($r=.13$, $p<.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자아존중감 영역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의 경우 방과 후 운동을 통해 신체운동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게임·채팅, 그리고 배회는 교사관련 자아($r=-.24$, $p<.01$, $r=-.17$, $p<.05$) 및 학업적 자아($r=-.13$, $p<.05$, $r=-.15$, $p<.05$)와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적 활동과정에서 형성되는 교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낮아지기 쉬움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차이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분석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 그리고 중재변인인 자기통제력 및 모감독의 평균차이를 분석하고 문제행동과 중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청소년의 성별 및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변인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 및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문제행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IV-24>, <표 IV-25 >와 같이 나타났다.

< 표 IV-24 >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성 별	남학생 M (SD)	여학생 M (SD)	t값
자기통제력	22.46 (3.72)	22.02 (3.89)	1.21
모감독	42.72 (8.25)	43.70 (7.84)	-1.29
문제행동	9.96 (7.41)	10.42 (8.64)	-.59

<표 IV-2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문제행동도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남학생만 문제행동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야 하고 남녀 청소년 성별 모두 문제행동 노출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IV-25>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없 음 M (SD)	2시간미만 M (SD)	2시간이상 M (SD)	F 값
자기통제력	22.45(3.85)	22.37(3.97)	21.96(3.68)	.66
모감독	46.71(6.92)a	43.93(7.17)b	41.09(7.29)c	18.70***
문제행동	7.61 (5.79)b	10.16 (7.70)a	11.65 (9.35)a	8.16***

***p<.001

<표 IV-25>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라 모감독(F=18.70, p<.001)과 문제행동(F=8.16, p<.001)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집에 따라 오히려 모감독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이 오히려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없는 집단에 비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 집단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특성으로 직업의 유무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F-test를 실시한 결과 <표 IV-26>, <표 IV-27>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26〉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없 음		있 음		t 값
	M	(SD)	M	(SD)	
자기통제력	22.42	(4.09)	22.06	(3.54)	.97
모감독	44.44	(6.79)	43.13	(7.58)	1.82+
문제행동	9.27	(7.43)	10.07	(7.97)	-1.06

+P<.10

〈표 IV-26〉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모감독 ($t=1.82, p<.10$)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F값
	M	(SD)	M	(SD)	M	(SD)	
자기통제력	21.75	(3.85)	22.46	(3.91)	22.09	(3.72)	1.02
모감독	40.08	(7.59)b	44.00	(7.08)a	46.12	(6.16)a	13.60***
문제행동	11.64	(8.77)	10.27	(8.67)	9.25	(5.72)	1.62

***p<.001

〈표 IV-27〉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모감독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0, p<.001$). 하위집단간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이상의 어머니가 중졸이하의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한 감독

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정의 수입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과 문제행동의
평균차이

가정의 수입에 따른 문제행동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F-test
를 실시한 결과 <표 IV-28>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28> 가정의 수입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
차 검증

	150만원 이 하 M (SD)	151만원- 250만원이하 M (SD)	251만원이상 M (SD)	F 값
자기통제력	21.99(4.01)	22.40(3.99)	22.38(3.52)	.39
모감독	40.38(8.56) ^b	43.40(6.66) ^a	45.13(7.00) ^a	11.44***
문제행동	10.33(10.00)	9.73(7.22)	10.35(8.00)	.29

***p<.001

<표 IV-28>에서 모감독만 가정의 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44, p<.001) 하위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p<.05)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모감독이
다른 집단보다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문제행동 그리고 중재변인으로 선정된 자기
통제력과 모감독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 <표 IV-29>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29〉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방과 후 활동, 자기통제력 및 모감독 간의 상관관계

	문제행동	
	남학생	여학생
공부활동	-.22*	-.14*
TV·비디오	.06	.04
독서	-.11	-.10
운동	.03	.04
컴퓨터게임·채팅	.14*	.20**
배회	.31***	.38***
봉사활동	-.17*	-.04
공연·영화관람	.01	.09
자기통제력	-.17*	-.31***
모감독	-.19*	-.12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9〉의 결과에서 방과 후 활동 중 남녀학생의 공부는 문제행동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22$, $p < .05$, $r = -.14$,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게임·채팅($r = .14$, $p < .05$, $r = .20$, $p < .01$), 그리고 배회($r = .31$, $p < .001$, $r = .38$, $p < .001$)는 문제행동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은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1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으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지만 컴퓨터게임·채팅 그리고 배회를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을 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과 다르게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은 적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과 각각 $-.17$ ($p < .05$), $-.31$ ($p < .001$)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감독은 남학생의 경우만 문제행동과 $-.19$ ($p < .05$)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덜 하게 되고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감독을 잘 할수록 문제행동 발생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3)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 효과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방과 후 활동이 남녀 청소년 공통적으로 공부, 컴퓨터 게임·채팅 및 배회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세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성별로 분석하였다.

(1) 남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의 중재효과

남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 대해 독립변인인 공부를 1단계에 투입하고 중재변인인 자기통제력을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부×자기통제력을 3단계에 각각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W-30>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활동과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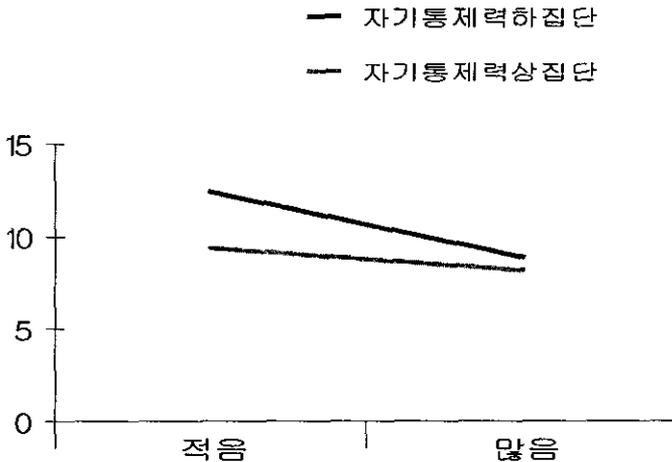
	β	ΔR^2
단계1		
공부	-1.10**	.05**
단계2		
자기통제력	-.66**	.06*
단계3		
공부×자기통제력	1.04*	.03*
R^2		.14***

* $p < .05$, ** $p < .01$, *** $p < .0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표 IV-30>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활동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고($\beta=1.04, p<.05$)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 및 자기통제력도 각각 $\Delta R^2 = .05, \Delta R^2 = .06$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공부를 안하는 것에 따른 문제행동의 발생은 남학생의 자기통제력과 관련되어 설명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부시간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서 자기통제력상하집단간의 문제행동점수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부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자기통제력 상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점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94, p<.10$). 이러한 결과는 공부를 적게 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자신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즉 방과 후에 공부를 적게 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문제행동을 하기보단 이들 중 자기 통



[그림 1] 남학생의 공부시간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결국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2) 남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남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 대해 독립변인인 컴퓨터 게임·채팅을 1단계에 투입하고 중재변인인 자기통제력을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게임·채팅×자기통제력을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31>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 및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컴퓨터게임·채팅	-.52	.02*
단계2		
자기통제력	-.49**	.03*
단계3		
컴퓨터게임·채팅× 자기통제력	.72*	.02*
R^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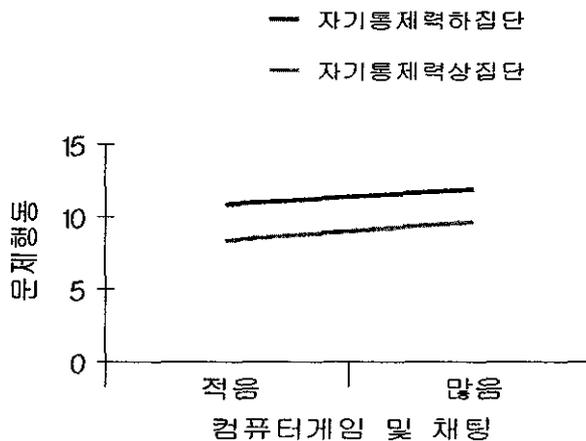
* $p < .05$, ** $p < .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표 IV-31>의 결과에서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2$, $p < .05$)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 및 자기통제력도 각각 $\Delta R^2 = .02$, $\Delta R^2 = .03$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중 컴퓨터 게임·채팅을 많이 하는 것에 따른 문제행동의 가능성은 그들의 자기통제력과 관련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컴퓨터 게임·채팅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서 자기통제력 상·하집단간의 문제행동점수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게임·채팅 상집단($t=2.59, p<.01$)과 하집단($t=2.82, p<.01$) 모두에서 자기통제력 상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남학생의 컴퓨터게임·채팅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3) 남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남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 대해 독립변인인 배회를 1단계에 투입하고 중재변인인 자기통제력을 2단계에 투

입하였고 마지막으로 배회×자기통제력을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IV-32>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2>의 결과에서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의 영향만 $\Delta R^2 = .09$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많은 배회시간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배회에 따른 문제행동발생은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2>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 및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 분석

	β	ΔR^2
단계1		
배회	.16	.09***
단계2		
자기통제력	-.16	.02
단계3		
배회×자기통제력	.11	.00
R^2		.11**

p<.01, *p<.0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4) 여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 효과

여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에게 적용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33>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33>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Delta R^2 = .02$, $\Delta R^2 = .09$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적은 공부시간 및 낮은 자기통제력 각각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지만 공부를 안하는 여학생이 문제행동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닌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문제행동 정도는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3>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공부 및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공부	-.08	.02*
단계2		
자기통제력	-.23	.09***
단계3		
공부×자기통제력	-.19	.00
R^2		.11***

* $p < .05$, *** $p < .0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5) 여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 효과

여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에게 적용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34>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4>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 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Delta R^2 = .04$, $\Delta R^2 = .09$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많은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시간 및 낮은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으로 인한 문제행동발생은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4>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컴퓨터게임·채팅	-.27	.04**
단계2		
자기통제력	.51***	.09***
단계3		
컴퓨터게임·채팅	.52	.01
×자기통제력		
R^2		.14***

p<.01, *p<.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의}$ 변화량

(6) 여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 효과

여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에게 적용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표 IV-3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5>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Delta R^2 = .15$, $\Delta R^2 = .06$ 으로 유의

〈표 IV-35〉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배회	.48	.15***
단계2		
자기통제력	-.21+	.06***
단계3		
배회*자기통제력	-.14	.00
R^2		.21**

+p<.10, **p<.01, ***p<.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많은 배회시간 및 낮은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배회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은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 효과

모감독의 중재효과 분석도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방과 후 활동으로 남녀 청소년 공통적으로 공부, 컴퓨터 게임·채팅과 배회로 나타나 세 활동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남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남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 대해 독립변인인

공부를 1단계에 투입하고 중재변인인 모감독을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부×모감독을 각각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36>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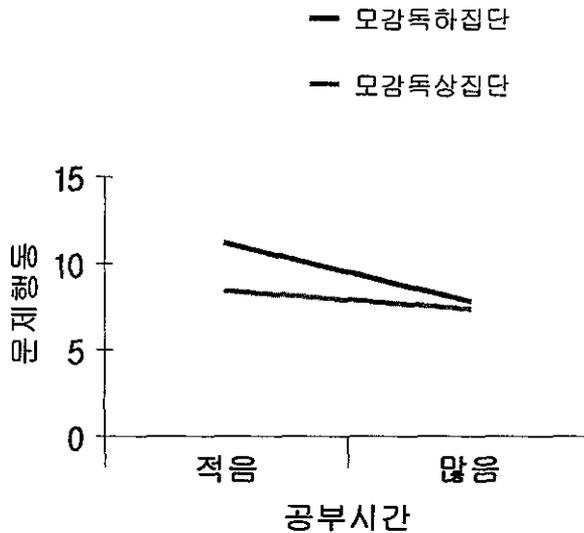
<표 IV-36>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공부활동 및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공부	-.18*	.05**
단계2		
모감독	-.21**	.02**
단계3		
공부×모감독	.20*	.04*
R^2		.11***

* $p < .05$, ** $p < .01$, *** $p < .0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표 IV-36>에서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모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고($\beta = .20$, $p < .05$)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 및 모감독도 각각 $\Delta R^2 = .05$, $\Delta R^2 = .02$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중 공부를 적게하는 것에 따른 문제행동의 가능성은 모감독과 관련되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남학생의 공부시간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부시간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서 모감독 상하집단간의 문제행동점수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부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모감독 상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3, p<.05$).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에 공부시간이 적은 청소년에 대해 어머니가 적극적인 모감독을 실시할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모감독을 소홀히 하면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쉬움을 제시해 준다.

(2) 남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남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

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컴퓨터 게임·채팅을 1 단계에 투입하고 중재변인인 모감독을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게임·채팅×모감독을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IV-37>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37>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컴퓨터게임·채팅	.29	.02*
단계2		
모감독	-.09	.04*
단계3		
컴퓨터게임·채팅×모감독	-.16	.00
R^2		.06**

* $p < .05$, ** $p < .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의}$ 변화량

<표 IV-37>에서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 및 모감독의 영향은 각각 $\Delta R^2 = .02$, $\Delta R^2 = .04$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에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어머니의 낮은 감독 각각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컴퓨터 게임·채팅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은 모감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남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 효과

남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배회를 1단계에 투입하고 중재변인인 모감독을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배회×모감독을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IV-38>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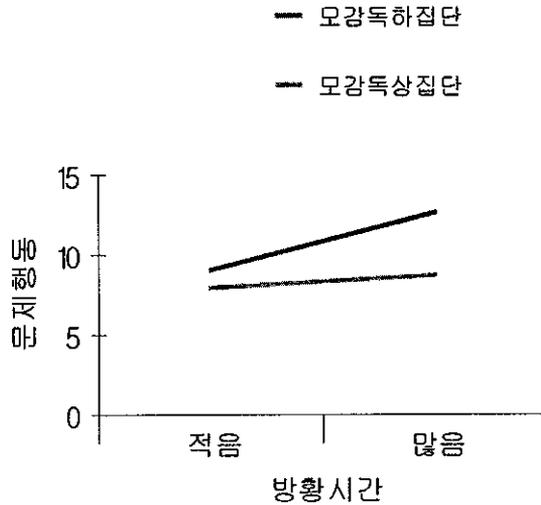
<표 IV-38>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β	ΔR^2
단계1		
배회	.98*	.09***
단계2		
모감독	.12	.03*
단계3		
배회×모감독	-.71+	.02+
R ²		.14***

+p<.10, *p<.05, ***p<.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²의 변화량

<표 IV-38>의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beta=-.71$, $P<.10$)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영향도 각각 $\Delta R^2 = .09$, $\Delta R^2 = .03$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남학생의 배회시간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회시간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서 모감독 상·하집단간의 문제행동점수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배회시간 이 많은 집단에서 모감독 상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7, p<.05$). 이러한 결과는 배회를 많이하는 청소년에 대해 어머니가 적극적인 모감독을 실시할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모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쉬움을 제시해 준다.

(4) 여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 효과

여학생의 공부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에게 적용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표 IV-39>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9>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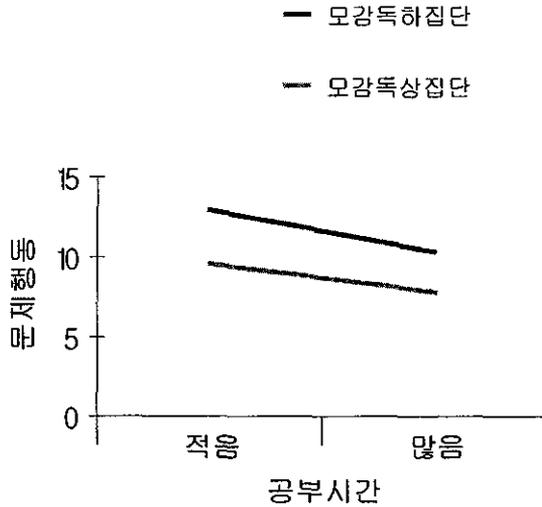
	β	ΔR^2
단계1		
공부	-.12+	.02*
단계2		
모감독	-.16*	.02
단계3		
공부×모감독	.37***	.13***
R^2		.17***

+ $p < .10$, * $p < .05$, *** $p < .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표 IV-39>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모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7$, $P < .001$)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의 영향도 각 $\Delta R^2 = .02$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부시간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서 모감독 상하집단간의 문제행동점수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부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모감독 상하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9$, $p < .05$). 이러한 결과는 공부를 안하는 여자 청소년에 대해 어머니가 적극적인 모감독을 실시할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모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쉬움을 제시해 준다.



[그림 5] 여학생의 공부시간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5) 여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여학생의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에게 적용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표 IV-40>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40>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영향력은 $\Delta R^2 = .04$, $\Delta R^2 = .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많은 컴퓨터 게임·채팅 시간 및 낮은 모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컴퓨터 게임·채팅을 많이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모감독이 예방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IV-40>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β	ΔR^2
단계1		
컴퓨터게임·채팅	-.08	.04**
단계2		
모감독	-.26	.01**
단계3		
컴퓨터게임·채팅	.32	.00
* 모감독		
R^2		.05**

+p<.10, *p<.05, **p<.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6) 여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여학생의 배회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에게 적용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표 IV-41>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41>에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의 영향력은 $\Delta R^2 = .16$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배회는 문제행동을 예측해 주고 이러한 관계가 어머니의 감독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1〉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β	ΔR^2
단계1		
배회	.69+	.16***
단계2		
모감독	.01	.00
단계3		
배회*모감독	-.32	.00
R^2		.16***

+p<.10, ***p<.01

β 는 최종단계에서 산출된 값. ΔR^2 은 R^2 의 변화량

V. 요약 및 논의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가설

공 백

V. 요약 및 논의

정규적 학교생활이 끝난 방과 후 시간은 청소년이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의 생활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실태 및 방과 후 활동과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소 보고되고 있지만 자기보호 능력이 증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실태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고 청소년의 자율적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적응 상태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모감독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중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혼자공부, 학원공부, TV·비디오 시청, 독서, 운동, 컴퓨터 게임·채팅, 노래방·만화방 가기, 배회, 봉사활동 및 공연·영화관람 등 10개 영역으로 선정하고 각 활동의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을 파악하고자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다. 셋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어머니 감독변인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의 중재효과를 밝힌다.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남녀 청소년 454명과 청소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연

관시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실태

첫째, 방과 후 활동별, 활동시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혼자공부는 일 평균 1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2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 평균 1-2시간 이내 및 월 평균 1-4시간 이내가 각각 18.0%와 11.8%로 나타났다. 학원공부는 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 평균 2-3시간 이내가 27.6%로 나타났다. 반면 23.8%가 전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을 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비율이 2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 평균 1-2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21.2%로 나타났다. 독서는 일 평균 1시간 이내가 21.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월 평균 1-4시간 이내가 17.4%로 나타났다. 운동은 일 평균 1시간 이내가 2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월 평균 1-4시간 이내가 14.9%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채팅은 일 평균 1-2시간 이내가 24.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 평균 2-3시간 이내가 18.1%로 나타났다. 노래방·만화방 출입은 월 평균 1-4시간 이내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주 평균 1-2시간 이내가 15.7%로 나타났다. 배회는 월 평균 1-4시간 이내 및 일 평균 1시간 이내가 17.1%와 16.7%로 비슷한 수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그리고 공연 및 영화 관람은 월 평균 1-4시간 이내가 각각 49.3%, 53.3%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활동은 월 단위로 주로 이뤄지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해 보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형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조사대상 청소년의 2/3 이상이 방과 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

에서 매일 학원에 공부를 하러 가는 청소년이 약 70%정도로 나타났고 2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비율이 60% 정도인 반면 2시간 이상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에 비해 일본과 중국의 청소년이 방과 후에 학업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결과(Fuligni & Stevenson, 1995) 및 중학생이 방과 후에 항상 하는 활동으로 학원가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결과(김미혜 등,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동부아시아 청소년은 방과 후에 공부를 많이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방과 후에 청소년은 공부 외에 TV·비디오 시청 또는 컴퓨터 게임 및 채팅으로 여가 시간을 주로 보내고 상대적으로 독서나 운동은 적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TV·비디오 시청을 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게임·채팅은 일 평균 1-2시간 미만으로 하는 비율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두 활동을 매일 하는 비율은 80%와 7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활동을 2시간 이상 하는 비율이 각각 약 45%와 35%로써 독서와 운동을 2시간 이상 하는 비율이 각각 7.6%와 6.2%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된다. 독서나 운동은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하는 비율이 각각 21%와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화복지 실태를 조사한 김민정(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 평균 TV시청 시간, PC 사용시간이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이 각각 31%와 2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 평균 독서시간으로 1시간 미만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uligni와 Stevenson(1995)의 연구에서도 TV시청이 미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보편적 여가활동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과 후에 이뤄지는 청소년의 TV시청 활동은 문화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으로 노래방·만화방 가기, 공연·영화관람은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주로 이뤄지고 있고 배회를

하는 집단은 주 단위 또는 매일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노래방 및 만화방 가기 그리고 공연 및 영화관람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약 75%와 77%이고 배회를 매일 일정 시간 하는 집단과 주단위로 한다는 집단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위 두 번째 사실과 연관시켜 볼 때, 방과 후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평일에는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반면 주말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날에는 활동반경을 넓혀 노래방이나 만화방 등을 전전하거나 배회를 하고 문화적 활동으로 공연 및 영화관람도 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둘째,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TV·비디오시청, 컴퓨터 게임·채팅, 학원공부, 혼자공부, 배회, 독서, 운동, 노래방·만화방 가기, 공연 및 영화관람, 그리고 봉사활동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학생은 정규적 교육이 끝난 방과 후에도 여가시간 못지 않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즉 정규 수업이 끝나도 장소만 다른 곳에서 학원강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가는 TV, 컴퓨터 등의 매체 앞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래방·만화방 가기, 배회하기, 운동하기, 공연 및 영화관람, 봉사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활동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활동을 방과 후에 규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하는 청소년의 비율보다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원공부, 독서, 운동 및 노래방·만화방 출입,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TV·비디오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공부, 컴퓨터 게임·채팅

및 배회 정도는 성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김미혜 등, 2001; McHale 등, 2001; Richard & Duckett, 1994)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독서, 노래방·만화방 출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미혜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여학생이 TV·비디오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미혜 등(2001)의 연구에서 성별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방과 후 활동의 정도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간에 근거하여 객관적 측정을 한 반면 김미혜 등(2001)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각으로 측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서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회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정도가 성별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방과 후 활동 중 컴퓨터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정도는 성별과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에서, 혼자공부는 자기보호시간이 없는 청소년이 자기보호시간이 2시간 이상인 청소년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공부는 자기보호시간이 2시간 미만인 청소년이 2시간 이상인 청소년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게임·채팅은 자기보호시간이 없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나 성인의 보호 없이 청소년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방과 후 활동은 공부 및 컴퓨터 사용시간임을 나타낸다.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학원공부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미혜 등(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부모의 보호 없이 혼자 있는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취업유무, 교육수준, 가정의 수입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취업모의 청소년이 취업모의 청소년보다 독서는 많이 하고 컴퓨터 게임 및 채

팅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들이 중졸 이하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학원공부와 혼자공부는 많이 하고 TV·비디오 시청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들이 150만원 이상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원을 적게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적은 가정의 청소년이 방과 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미혜 등의 결과(2001)와 일치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다고 밝힌 McHale 등(200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학업활동과 관련되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 일 평균 1시간 이상 학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약 70%로 나타난 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경제적 빈곤층에서는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자녀의 학원교육에 투자가 적게 이뤄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방과후 학원공부 및 혼자공부 시간이 높고 TV시청이 낮다는 결과는 자신이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공부는 많이 하게 하고 TV시청은 제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심리적 적응상태를 알아보고자 적응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선정하여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을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친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친구관련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게임 채팅 그리고 배회를 많이 할수록 학업적 자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TV·비디오 시청을 많이 할수록 교사관련 자아 및 신체외모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게임 과 채팅을 많이 할수록 교사관련 자아와 학업적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회를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은 자아존중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공연 및 영화 관람은 남녀 청소년의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과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가 남녀의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와 그리고 남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김미혜 등(200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방과 후 학업적 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높은 학교적응, 학업성취 및 성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Fuligni와 Stevenson(1995)에서도 방과 후 공부는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방과 후 활동 중 학업활동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방과 후에 이뤄지는 공부활동 동안 남녀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도 그 활동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이미리, 2002)와 본 연구의 결과를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방과 후 학업활동 과정 자체는 청소년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상반되게 작용시키는 혼란스러운 경험이지만 학업활동의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경우, 공부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열중한 학생은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학업적 자아의 발달에 컴퓨터 게임·채팅, 배회가 부적절한 관련성을 가지는 방과 후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업적 장면에서 한국 청소년이 자신감과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활동이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한편 운동, TV시청, 컴퓨터 게임, 배회하기 등의 여가 동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낮게 인식한다는 사실(이미리, 2002)에서 또 다른 청소년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은 여러 가지 비학업적 활동 과정 자체를 즐거워 하지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않고 이러한 활동에 많이 참여한 결과는 학업적 실패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독서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활동으로 나타난 사실은 독서가 학업성적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McHale들, 2001)와는 일치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독서가 장기적으로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독서에만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방과 후 여가활동의 지도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배회가 남녀의 학업적 자아, 여아의 가정적 자아 및 교사관련 자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McHale 들의 결과(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들의 결과에서 배회와 집밖에서의 방황은 여아의 부정적 자아상의 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여가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말에 자주 이뤄지는 배회가 결국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방과 후 활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활동이고 부정적 영향은 여학생에게 더 강하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주중보다 여유

로운 시간이 많은 주말에 청소년에게 배회를 오랜 시간동안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지도를 해야한다는 미시적 차원 못지 않게 청소년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시적 차원의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청소년이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여가는 삶의 활력소이지만 현재 적합한 여가시설 및 장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3.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세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중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활동 영역을 밝히고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지를 성별로 살펴해보았다.

사전분석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수준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보호 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보호시간이 적은 청소년보다 모감독 수준이 낮고 문제행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모감독만 유의미하였는데 비취업모의 모감독 수준이 취업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졸 이상의 모감독이 중졸 이하의 모감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입에 따른 차이로써 월 수입 150만원 이상의 가정에서 150만원 미만의 가정보다 모감독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자기보호시간이 많아 부모의 적극적 관심이 더 필요한 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감독으로부터 소홀하고

이러한 감독 소홀은 낮은 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낮은 학력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 가정이면서 어머니가 낮은 학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과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방과 후 학원도 갈 경제적 형편이 못되므로 자연히 방과 후 자기보호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제행동 상황에 쉽게 노출될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에 따라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학생의 공부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게임·채팅 그리고 배회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봉사활동은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한다는 결과는 학업활동이 공격성 및 산만함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김미혜 등, 2001, 옥경희 등, 2001)와 일치한다. 또한 봉사활동이 남학생의 문제행동 예방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비록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같은 실시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된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컴퓨터 게임·채팅이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인터넷 중독이 한국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김혜원, 2001; 이해경, 2002, 조남근, 양돈규, 2001) 이에 따른 인터넷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방과 후 학업활동의 참여는 문제행동과 부적으로 관련되고 반대로 배회는 문제행동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은 김미혜 등(2001), 옥경희 등(2001), McHale 등(2001), Posner와 Vandell(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방과 후에 청소년을 문제행동 발생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컴퓨터 게임·채팅과 배회는 적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다. 과연 청소년에게 공부만 하게 하고 그들의 주된 여가활동인 컴퓨터를 못하게 하고 배회도 못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마지막으로 살펴 본 연구문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부분적 해답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방과 후 활동으로 공부를 적게 하고, 컴퓨터나 배회를 함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밝혀졌다. 즉 남녀학생의 공부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모감독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공부를 적게 하고 컴퓨터 게임·채팅을 많이 하는 것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이 자기통제력에 의해 완화되고 배회에 따른 문제행동은 모감독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모감독이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수의 결과(나유미, 임연진, 2003; Crouter et al, 1990; Jacobson,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모감독은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모감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효율적임을 제시해 준다. 방과 후에 공부를 안하는 남녀학생과 배회하는 남학생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감독을 한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항상 가지고 친한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자녀가하기를 원하는 활동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올바른 행동지도를 위한 적극적 역할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의 배회에 따른 문제행동은 모감독에 의해 완화될 수 있지만 여학생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게 한다. 남녀학생의 배회의 성격

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방과 후 방황하는 과정에서 일탈 또래와 어울릴 가능성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결과(Galambos & Maggs, 1991)에서 추론해 보면 남학생은 특별한 목적 없이 일상적 생활로서 배회가 이뤄지므로 그들에 대한 성인의 감독이 이뤄진다면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여학생의 배회는 문제행동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 즉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이 높은 여아가 배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쉽게 일탈 또래와 어울리므로 배회를 많이 하는 여학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감독만으론 문제행동에 개입되는 것을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의 공부 및 컴퓨터 게임·채팅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높은 자기통제력은 비행(민수홍, 1996)이나 행동문제(김선희와 김정연, 1999; Galambos & Maggs, 1991)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공부를 적게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에 수반되어 문제행동에 개입될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학생은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한 중학생의 방과 후 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

한 역할로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모감독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실시된 본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은 방과 후 여가 활동으로 평일에는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고 주말에는 배회를 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 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직업유무 및 가정의 수입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다르다.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은 혼자공부시간과 학원공부시간이 적고 반면 컴퓨터게임·채팅하는 시간은 많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수입이 높은 청소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 및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TV·비디오 시청 시간은 적다. 비취업모 자녀들은 취업모 자녀들 보다 독서를 많이 하는 반면 컴퓨터 게임과 채팅은 적게 한다.

셋째, 남녀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되는 방과 후 활동은 공부와 독서이고 남학생의 경우 운동도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된다. 반면 TV·비디오 시청, 컴퓨터 게임·채팅, 배회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저해하는 활동이다.

넷째,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으로 학업적 활동과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은 적고 컴퓨터 게임·채팅, 배회를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러한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어머니 감독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방과 후에 남학생이 공부를 안하거나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 문제행동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다. 방과 후에 공부를 안하는 남녀학생과 배회하는 남학생에 대해 어머니의 적극적 감독이 이뤄진다면 자녀의 문제행동은 예방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과제

중학생의 방과 후 활동의 실태 및 방과 후 활동과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방과 후 활동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다.

(1) 학문적 기여

첫째,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이뤄진 본 연구의 결과 즉 청소년이 방과 후에도 학원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여가활동으로 평일에는 많은 시간을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데 보내고 주말에는 배회를 한다는 사실은 한국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실상을 밝혀 줄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형식적 교육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청소년이 학원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매체 앞에서나 배회를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자료는 구체적이고 청소년의 자기 계발적 방과 후 프로그램 모색을 위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2) 사회적 효과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이 청소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과 취업모 가정의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한 자료는 직장 생활로 바쁜 부모들의 자녀 생활에 대한 이해의 자료가 되고 나아가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자로서 청년기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방과 후에 공부를 적게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거나 배회하는 청소년은 문제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가정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시킬 것이다. 특히 모감독의 중재효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부를 적게 하는 남녀 학생 및 배회하는 남학생에 대한 모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셋째, 방과 후 활동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과는 무관하지만 남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서 학생 봉사활동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사회, 정부의 인식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넷째,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에서,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의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기관으로서 학교와 정부 차원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것이다.

(3) 정책적 지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 후 활동의 실태를 살펴 본 연구결과에서 방과 후에 대부분의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 어머니의 학력이 낮거나 가정의 수입이 적은 청소년은 학원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학원비 부담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빈곤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정부차원의 교육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청소년이 여가활동으로 평일에는 TV나 컴퓨터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모색이 거시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주5일 수업제의 실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현장학습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또는 특별활동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째, 배회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중보다 여유 시간이 많은 주말에 청소년에게 배회를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지도를 해야 한다는 미시적 차원의 대안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이 범람하고 청소년의 여가를 위한 건전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시적 차원의 여가시설과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넷째,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접촉시간이 낮은 상황에 있는, 즉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청소년과 취업모의 모감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학력과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어머니의 모감독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자녀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하여 오히려 모감독이 필요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감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과 감독 내용을 전달해 줄 직장내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상의 학문적·사회적 효과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의의를 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가 대도시 특정 거주지역 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뤄짐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의 지역적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방과 후 활동영역을 10가지만으로 한정시켜 실태를 파악한 제한점이 있다. 실제로 개인과 가족의 특성, 지역적 상황 등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좀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셋째, 중학생의 교내 방과 후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로 인해 본 연구에서 교내 방과 후 활동과 그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을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미해, 옥경희, 천희영(2001). 초기 청소년기 방과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안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민정(2003). 청소년 문화복지 실태 및 만족도와 요구분석 연구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0(1), 45-87.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현숙(1999).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8(2), 91-117.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발달: 환경적 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요인. 청소년학 연구, 8(1), 143-162.
- 나유미, 임연진(2002).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관리 노력: 학년에 따른 변화. 아동학회지, 23(4), 89-104.
- 나유미, 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에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진경과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학지사.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2001). 저소득층 가정 자기보호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2(1), 1-52.
- 유혜경(1986).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남(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미리(200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40(1), 69-84.
- 이선경(200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우울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 연구*, 9(1), 91-114.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휘숙(1997). 청년심리학. 장승
- 조남근과 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91-11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2002).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rndt, T. J.(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ianchi, S. M., & Robinson, J. (1997).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32-344.
- Brannigan, A., Gemmell, W., Pevalin, D. J., Wade, T. (2002). Self-control and social control in childhood misconduct and aggression: the role of family structure, hyperactivity, and hostile parenting.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4(2), 119-142.
- Brody, G. H., & Flor, D. L. (1997).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family process, and child development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00-1011.
- Bullock, M., & Lutkenhaus, P. (1990). Who am I? Self-understanding in toddlers. *Merrill-Palmer Quarterly*, 36, 216-238.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i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Fuligni, A. J., & Stevenson, H. W. (1995).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 830-842.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 578-594.
- Galambos, N. L., & Maggs, J. L.(1991). Out-of-school care of young adolescents and self-reported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44-655.
- Howes, C., & Olenick, M.(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 Jacobson, K. C.(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87.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Larson, R. W.(1997). The emergence of solitude as a constructive domain of experience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8(1), 80-93.
- Mahoney, J. L., & Cairns, R. B.(1997). Do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tect against early school dropout?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41-253.
- Marsh, H. W.(1992). Extracurricular activities: beneficial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curriculum or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4), 553-562.
- McHale, S.M., Crouter, A. C., & Tucker, C. J.(2001). Free-time activities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6), 1764-1778.
- McNeal, R., Jr.(199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high school Dropouts. *Sociology of Education*, 68(1), 62-81.
- Newman, S. A., Fox, J. A., Flynn E. A., & Christeson, W. (2000).

- America's After-School Choice: the prime time juvenile crime, or youth enrichment and achievement. Fight Crime: Invest in Kids, Washington, DC
- Papini, D. R., Farmer, F. F., Clark, S. M., Micka, J. C., & Barnett, J. K. (1990) Early adolescent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of emotional disclosure to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15*, 959-1001.
-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Meece, D. W.(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Posner, J. K., & Vandell, D. L.(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9.
- Richard, M. H., & Duckett, E.(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early adolescence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 Rohner, R. P., & Petteng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haffer, D. R.(1991/1996).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Brooks/Cole.
- Smetana, J. G.(1988). Adolescent' and parents' conceptions of

-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321-335.
- Stattin, H., & Kerr, M.(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 Steinberg, L., & Fletcher, A. P.(1994).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Pediatrics*, 93(6), 1060-1064.
-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공 백

부 록

공 백

부 록

< 자녀용 >

* 방과 후 활동 척도

* 귀하의 학교생활이 끝난 후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하루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하시는지 보기에서 찾아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만약 해당하는 답이 보기에 없다면 적어주십시오.

활 동 내 용	활 동 시 간	보 기
1. 집이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①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2.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② 하루 평균 2시간 - 3시간 이내
3. TV나 비디오 보는 시간		③ 하루 평균 1시간 - 2시간 이내
4. 독서시간		④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5.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하는 시간		⑤ 1주일에 3시간 이상
6. 운동하는 시간		⑥ 1주일에 2시간 - 3시간 이내
7. 만화방, 노래방 가는 시간		⑦ 1주일에 1시간 - 2시간 이내
8. 친구와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		⑧ 1주일에 1시간 이내
9. 봉사활동		⑨ 월평균 1-4시간이내
10. 영화, 연극, 각종 공연 관람		⑩ 안한다

자아존중감

* 귀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글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유사한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기쁘다					
2 나는 쉽게 짜증을 내서 걱정이다					
3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					
4 부모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셔서 기쁘다					
5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6 나는 운동을 잘해서 자랑스럽다					
7 부모님이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8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을 잘 쳐서 자랑스럽다					
9 부모님이 내보다 다른 형제를 더 좋아하셔서 속이 상한다					
10 나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안타깝다					
11 나는 이기적이라서 걱정이다					
12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화가 난다					
13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4 선생님께서 나에게 차별대우를 하셔서 속이 상한다					
15 나는 고집이 세서 걱정이다					
16 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17 나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주 이겨서 기쁘다					
18 나는 내 몸무게에 만족한다					
1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20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뿌듯하다					
21 내 친구들이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어서 기쁘다					
22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럽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나는 다른 친구의 도움없이도 잘 생활할 수 있어서 흐뭇하다					
24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서 나는 흐뭇하다					
25 선생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나는 슬프다					
26 나는 체육 시간이 괴롭다					
27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28 나는 화를 잘내서 걱정이다					
29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나를 위로해 줄 친한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30 나는 내 피부색에 만족한다					
31 나는 친구가 많아서 기쁘다					
32 선생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셔서 기쁘다					
33 내게 맡겨진 일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34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기쁘다					
35 내게는 좋은 점이 많아 자랑스럽다					
36 선생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3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38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므로 행복하다					
39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40 친구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뿌듯하다					
41 나는 처음하는 운동이라도 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42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한다					
43 나는 체력이 좋아서 자랑스럽다					
44 나는 아는 것이 많아서 다른 아이들이 모를 때 알려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45 나는 남들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 뿌듯하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서 기쁘다					
47. 선생님께서 내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다.					
48.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뿌듯하다					
49. 나는 남을 질투해서 걱정이다					

자기통제력

* 다음은 귀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행동과 가장 유사한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와 얘기할 때 말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끼인다					
2. 나는 흥분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찬찬히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3.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한다.					
4. 나는 과제나 일을 하다가도 쉽게 다른 것으로 관심이 쏠린다					
5. 나는 한번 시작한 것을 중간에 그만두기 보다는 끈기를 갖고 계속한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					
7. 나는 하고 싶은 행동을 당장 해야 한다.					

문제 행동척도

*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최근 6개월간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해당하는 칸에 “V”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없었다	1-2회	3-4회	5-6회	자주
1 부모님 모르게 학교나 학원을 결석 한 경험					
2 음주를 한 경험					
3 흡연을 한 경험					
4 학생 신분을 속인 경험					
5. 수업시간에 산만하거나 과제를 안한 경험					
6. 부모님에게 말대꾸나 반항을 한 경험					
7 교사에게 말대꾸나 반항을 한 경험					
8 나쁜 친구와 어울려 돌아다닌 경험					
9 부모님 허락없이 외박을 한 경험					
10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를 복용한 경험					
11 가출을 한 경험					
12 이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경험					
13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					
14 다른 학생을 때린 경험					
15 패싸움을 한 경험					
16 다른 학생의 돈을 뺏거나 돈을 가져오라고 한 경험					

<어머니용>

어머니 감독 척도

* 다음은 평소 자녀의 생활에 대해 어머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생각과 비슷한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안다	많이 안다	매우 많이 안다
1 나는 자녀가 자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안다.					
2 자녀가 자유로운 시간에 함께 보내는 친구가 누구인지 안다					
3 자녀의 학교 과제나 준비물을 안다					
4 자녀가 용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안다					
5 자녀의 학교 시험이 언제인지 안다					
6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과목들을 자녀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안다					
7 자녀가 밤에 친구와 외출할 때 가는 장소를 안다					
8 자녀가 방과 후 주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안다					
9 자녀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안다					
10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컴퓨터사이트를 안다					
11 자녀의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을 안다					
12 자녀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다					
13 자녀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다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임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이상오·
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주)계문사 TEL.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자료실)

ISBN 89-7816-482-X(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책임자 : 김희화(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연구 요약

학교 교육이 끝난 방과 후 시간은 청소년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는 시간으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자기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많은 문제행동이 방과 후 시간에 발생하고 있고 취업모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어렵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이 방과 후에 학원에서 보내고 있지만 차후 주5일 수업제의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실태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적응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중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혼자공부, 학원공부, TV·비디오 시청, 독서, 운동, 컴퓨터 게임·채팅, 노래방·만화방 가기, 배회, 봉사활동 및 공연·영화관람 등 10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활동의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을 파악하고자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방과 후 활동에 따른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어머니감독 변인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의 중재효과를 밝힌다.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남녀 청소년 454명과 청소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일원변량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방과 후 활동의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자공부는 일 평균 1시간 이내로 하는 비율이 2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공부는 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은 일 평균 3시간 이상 하는 비율이 25.4%이고 독서 및 운동은 일 평균 1시간 이내가 각각 21.0%와 21.8%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채팅은 일 평균 1-2시간 이내가 24.9% 이었고 노래방과 만화방 출입, 봉사활동, 공연·영화관람은 월 평균 1-4시간 이내가 각각 29.8%, 49.3% 및 53.3%로 나타났다. 배회는 월 평균 1-4시간 이내 및 일 평균 1시간 이내가 17.1%와 16.7%로 비슷한 비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방과 후 모습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방과 후에 많은 시간 동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여가로는 TV·비디오 시청, 컴퓨터 게임 및 채팅을 주로 하며 운동이나 독서는 적게 한다. 주말에는 노래방·만화방 출입 및 배회를 하고 봉사활동이나 공연 및 영화 관람은 월 단위로 한다. 방과 후 활동의 정도는 청소년의 성별, 자기보호시간,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교육수준 그리고 가정의 수입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을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친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친구관련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채팅 및 배회를 많이 할수록 학업적 자아

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TV·비디오 시청을 많이 할수록 교사관련 자아 및 신체외모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학업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게임과 채팅을 많이 할수록 교사관련 자아와 학업적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회를 많이 할수록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및 학업적 자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은 자아존중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공연 및 영화 관람은 남녀 청소년의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과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청소년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아지나 컴퓨터게임·채팅 그리고 배회를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봉사활동은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으로 공부를 적게 하고, 컴퓨터나 배회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밝혀졌다. 즉 남녀학생의 공부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공부를 적게 하고 컴퓨터 게임·채팅을 많이 하는 것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이 자기통제력에 의해 완화되고 배회에 따른 문제행동은 어머니 감독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9
1. 청년 초기의 발달적 특성	11
2. 방과 후 활동	13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적응	20
4. 자기통제력	26
5. 어머니 감독	29
III. 연구방법	33
1. 조사 대상 및 절차	35
2. 측정도구	37
3. 자료의 분석	40
IV. 연구 결과	43
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실태	45
2.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61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69
V. 요약 및 논의	91
1.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실태	94
2.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98
3.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101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4
부 록	117

표 차 례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36
<표 IV-1> 혼자공부활동의 시간별 비율	46
<표 IV-2> 학원공부활동의 시간별 비율	47
<표 IV-3> TV·비디오 시청 시간별 비율	47
<표 IV-4> 독서의 시간별 비율	48
<표 IV-5> 운동의 시간별 비율	49
<표 IV-6> 컴퓨터 게임·채팅의 시간별 비율	50
<표 IV-7> 노래방·만화방 가기의 시간별 비율	51
<표 IV-8> 배회의 시간별 비율	52
<표 IV-9> 봉사활동의 시간별 비율	53
<표 IV-10> 공연·영화관람의 시간별 비율	54
<표 IV-11> 전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평균점수	55
<표 IV-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56
<표 IV-13>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57
<표 IV-1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평균차 검증	59
<표 IV-15>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59
<표 IV-16> 가정의 수입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의 평균차 검증	60
<표 IV-17>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62
<표 IV-18>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63
<표 IV-19>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64
<표 IV-2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65

<표 IV-21> 가정의 수입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 검증 ...	65
<표 IV-22> 남학생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67
<표 IV-23 > 여학생의 방과 후 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68
<표 IV-2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69
<표 IV-25> 청소년의 자기보호시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70
<표 IV-26>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71
<표 IV-2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71
<표 IV-28> 가정의 수입에 따른 자기통제력, 모감독 및 문제행동의 평균차 검증	72
<표 IV-29>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방과 후 활동, 자기통제력 및 모감독 간의 상관관계	73
<표 IV-30>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활동과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74
<표 IV-31>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 및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76
<표 IV-32>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 및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78
<표 IV-33>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공부 및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79
<표 IV-34>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80
<표 IV-35>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자기통제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81

<표 IV-36>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공부활동 및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82
<표 IV-37>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84
<표 IV-38>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85
<표 IV-39>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공부와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87
<표 IV-40>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컴퓨터 게임·채팅과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89
<표 IV-41>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회와 모감독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90

그림 차례

[그림 1] 남학생의 공부시간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75
[그림 2] 남학생의 컴퓨터게임·채팅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77
[그림 3] 남학생의 공부시간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83
[그림 4] 남학생의 배회시간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86
[그림 5] 여학생의 공부시간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모감독의 중재효과	88